19세기초 유희 『물명고』의 분류명 내원과 분류체계 연구*

김 일 권**

- 1. 서론
- 2. 대분류명 성격에 대한 불교적 유정무정론과 성리학의 태극동정론
- 3. 『물명고』의 대중소 범주와 하위 분류체
 - 계 특성
- 4. 결론

초록: 이 글은 19세기초 한글물명이 부기된 유희의 『물명고』(1824)를 대상으로 여기에 적용된 대중소의 3단계 물명 분류 체계와 분류명 구성의 특성을 고찰한 연구이다. 유희가 매우 특이한 분류명으로 사용한 4종의 대범주명이 지닌 사상적 배경을 고찰하여, 불교의 유정무정 지각론, 북송대 신유학의 『태극도설』에서 기반한 태극동정론과 오행질료론 및 한의학의 본초서가 전개시켜온 오행적 광물분류론이 복합된 것으로 파악하였고, 그 결과 동식물류는 지각의 관점인 정식(情識)의 유무에 따라 제1 유정류는 지각운동이 있는 동물류, 제2 무정류는 지각운동이 없는 식물류를 지칭하는 분류명으로 수립되었고, 광물류는 능동의 유무에 따라 제3 부동류는 불능동하는 고정성의 토석금 광물류, 제4 부정류는 정적이지 않는 유동성의 수화류를 분류하는 이름으로 수립한 것이라 추론하였다. 이들 전체는 동식광물의 '생활자연물'에 대한 물명 분류로 조망되고, 그래서 『물명고』는 '물명 자연물 세계'에 대한 탐구서 성격으로 규정되었다.

다음 소분류명에서 동물류를 분류한 우충, 모충, 나충, 인충, 개충은 고대 진한시대에 성립된 오행사상적 동물분류설인 오충설(五蟲說)을 그대로 전승한 체제이고, 이때 털이 가는 세모(細毛) 의 모충(毛蟲)은 초식동물류를, 털이 얕은 천모(淺毛)의 나충(贏蟲)은 육식과 야생동물류를 지칭하는 분류들로 사용한 것이라 파악되었다. 나머지 우충(羽蟲)은 조류, 인충(鱗蟲)은 어류, 개충

^{*} 이 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년도 공동연구과제(유희 『물명고』연구와 색인 편찬) 지원 비로 수행되었음.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介蟲)은 패류·갑각류를 분류하여, 전체적으로 『물명고』의 오충 소분류가 각각 조류, 초식동물, 육식동물, 어류, 패갑류의 분류틀이라 고찰되었다.

여기에 빠진 곤충은 동물류 전체를 포괄하는 광의의 용법과 작은 벌레의 소충류(小蟲類)를 지칭하는 협의의 용법이 있고, 이중 『물명고』는 소충의 충치류를 포괄하는 분류명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남송초 정초의 『통지』(1116) 「곤충초목략」이 공자가 강조한 시명다식(詩名多識)의 물명(物名) 중요성에 의거하여 자연의 조수초목에 대한 분류와 물명 고찰을 적용한 것이어서 유희가 『물명고』를 편찬한 것과 동궤의 문제의식으로 크게 주목되었다. 또한 중간분류명으로 수중동물(鱗蟲, 介蟲)을 묶은 수족(水族)과 동물(毛蟲, 贏蟲)을 묶은 수족(獸族)을 사용한 문제도 아울러 고찰하였다.

최종적으로 물명 자연물을 궁극 대상으로 삼은 『물명고』는 4류-7족-13부의 대중소 3단계 분류체계 아래 총 685항의 물명 표제항을 수록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그중 광물류가 1할 정도(81항, 12%)인 반면에, 나머지 9할(604항, 88%)이 동식물류에 집중된 분포여서, 『물명고』의 물명 연구에 본초서 계통과의 심화 비교가 크게 요청되었다. 또한 『물명고』가 선행된 『재물보』(1798)의 항목을 취사선택한 방식이어서 향후 양자의 비교연구를 통해 한글물명의 문제도 심화할 필요성이크다 보았다.

핵심어: 『物名考』, 『才物譜』, 『通志』의 詩名多識, 有情・無情 知覺論, 『太極圖說』의 太極動靜論, 『西銘』의 若動若植論. 五行五蟲說

1. 서론

분류학은 자연과 인간의 질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사유 방식이자, 사물 인지를 위한 인간 지식의 보편적 분절 방법이며, 존재의 궁극을 탐구하는 중요한 지적 행위이다. 같은 부류끼리 유비해내는 동류(同類) 관점, 끝없이 분별해내는 동이(同異) 관점, 안팎의 경계를 가늠하는 범주(範疇) 관점, 상호간의 친연 관계를 연결하는 계통(系統) 관점, 외형상 특성을 분절 묘사하는 형태비교론, 질료적 특질을 조사하는 실험분석론 등은 분류학이 취하는 기초 방법론이다. 이렇게 근대학문에서 분류학(taxonomy)은 낯설고 모호한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체계적 인지를 진전시키는 주요 학문방법론으로 발달하였다. 조선 말기에 물명(物名)이란 주제

아래 여러 물명서(物名書)가 편찬된 것은 그런 물명의 분류학적 관심이 촉발된 것이라서 조선후기의 지식 생태계를 심화하는 주목할 대목이라 하겠다.

우리는 조선이 건국한 지 불과 55년만인 세종 28년(1446) 9월 훈민정음의 반포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말 향명(鄕名)으로 사물의 이름을 표현하고 기록하는 일이 더욱 자유롭게 되었다.1)

임란 직전 근 10년에 걸쳐 언해하였다가 광해군 5년(1613) 9월에 관찬된『시경 언해』(20권 10책)는 그러한 사물의 향명 문제를〈물명(物名)〉이란 편명으로 세워 정리한 효시로 꼽히며,(351항 수록)²) 이는 공자가『논어』「양화편」에서『시경』을 통해 조수 초목의 이름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³)라는 '물명 다식(物名多識)'의 정신에 더욱 충실한 방식이었다.⁴) 그러나 현전하는 물명서류 39종의 목록을 보면, 이후 185년이나 지난 정조 말년 이만영(李晚永, 1748-1817)의『재물보(才物譜)』(8 권 8책. 1798년)5)가 처음으로 나왔고, 이 직후인 19세기초 순조대에 물명서의 편

¹⁾ 김일권, 2019「장서각 소장본『향약집성방』의 판본가치 재조명과「향약본초부」「초부편」의 향명식물 목록화 연구」、『장서각』41집, 한중연, 90-145면; 김일권, 2020「장서각 소장 본『향약집성방』향약식물 5부(초목과곡채) 목록화 및 북송대『증류분초』식물부와 비교 연구」『장서각』43집, 한중연, 200-276면; 김일권, 2021「장서각소장 국보 초간본『동의보감』의 학술가치와「탕액본초편」초부(草部) 향명식물 목록화 연구」『장서각』45집, 한중연.

²⁾ 윤향림, 2018 「물명어휘집의 계통과 어휘 연구」, 안동대 국문학과 박사논문, 35면,

^{3) 『}論語』제17 「陽貨篇」:「子曰,"小子,何莫學夫詩? 詩,可以興,可以觀,可以羣,可以怨,邇之事父,遠之事君,多識於鳥獸草木之名."」(소자들은 어째서 시(시경)를 배우지 않는 것인가? 시는 흥취를 일으키고, 사물을 관찰케 하고, 인간사회를 읽게하고, 세태의 풍자를 드러내며, 가까이는 어버이를 섬기고, 멀리로는 군주를 잘 섬기도록 하며, 또한 산야의 조수와 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게 한다.)

^{4) 『}시경언해』(20권 10책)의 각권 앞에 각종〈물명〉을 정리 제시하였고 총 351항에 이른다. 이 부분만 따로 펴낸 것이 『파경물명(葩經物名)』(1책본, 일명 詩經諺解物名[시경언회물명], 1613년. 국중도 위창古1233-8)이다. 공자가 '『시경』을 읽으면 조수와 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 수 있다.'하였고, 이를 따라 초기 물명서인 이철환(父, 1722-1779)·이재위(子, 1755-1825)의 『물보(物譜)』(1770-1802년경)〈서문〉은, "공자가 '조수와 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아야 한다.'하였으니, 물명 역시 강구해야 하는 대상이다."(子曰, 多識草木鳥獸之名, 蓋物名亦在所講也.)라고 하여, 이른바 '물명 다식'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이가원, 1960 「『物譜』와 실학사상』、『인문과학』 5권,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74면; 장유승, 2014 「조선후기 물명서의 편찬동기와 분류체계」、『한국고전연구』 30집, 한국고전연구회, 178면.

찬이 고조되는 흐름이다.⁶⁾ 이를 전근대시기로 한정하면 27종이 되고, 이중 편자가 밝혀진 것은 11종 가량이다.⁷⁾

장유승(2014)은 물명서의 편제가 기존의 류서류(類書類) 분류체계를 크게 벗어 나지는 않음을 확인하면서, 그 구성에 따라 첫째, 전통적 류서류의 분류방식인 천

⁵⁾ 약 20여 종 이본(異本)이 4책본, 8책본의 필사본으로 유통되었으며, 대개는 『才物譜』(고려 대 육당문고 4권 4책본, 국중도 한古朝91-23 8권 8책본, 일본 나카노시마도서관 8권 4책본 등)로 제명되었고, 『萬物譜』(규장각, 4책본), 『萬物草』(장서각, 1책본) 등의 이칭도 있다. : 윤향림, 2018 「물명어휘집의 계통과 어휘 연구」, 41면. 일제시기 정인보는 「書才物譜後」(1939.2)에서 『재물보』의 저자가 이만영이고, 「再書才物譜後」에서는 韓山 李氏 족보를 통해 그의 생물연도가 정조 을묘년(1748)-순조 정축년(1817)임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 주요 근거는 이만영이 『재물보』를 완료한 뒤 西坡 柳僖에게 교열을 부탁하였고, 그 답신으로 유희가 보낸 '與李進士晚永'(1807.4)의 편지글이 확인되면서이다. 이 문제를 고찰하면서 유희의 『물명고』가 이만명의 『재물보』를 참조하되 어떤 차별성을 지니는지를, 황문환, 2016 「유희의 『재물보』 비판을 통해본 『물명고』의 차별성」, 『한국실학연구』 32집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⁶⁾ 장유승(2014)의 〈현전 물명서 일람표〉(203면)에서 39종의 물명서 목록을 정리하여 큰 참조가 된다. 이를 활용한 윤향림(2018)의 〈물명어휘집 편저자 및 편찬시기〉(34면) 역시 39종을 제시하나 그 목록과 시기 등에 차이가 있으며, 단 시기순으로 정리하므로 경향성 파악에 도움이 된다. 이를 참조하면, 『파경물명』(1613) 이후 정조 22년(1798) 1『재물보』가처음 제시된 목록이다. 이후 19C 전반기 목록은 2『물보』(이재위, 1802), 3『광재물보』(미상, 19C초), 4『과정일록』(미상, 19C초), 5『시물명고』(유희, 1820), 6『물명고』(유희, 1824), 7『죽란물명고』(정약용, 1819), 8『청관물명고』(정약용, 19C초), 9『박물신서』(미상, 19C), 10『물명유해』(이학규, 1824), 11『속명류취』(미상, 1843), 12『송간이록』(19C)까지 12종이고, 이후 19C 후반기는 『사류박해』(심노순·김병규, 1855), 『명물기략』(황필수, 1870) 등 13종이고, 20C 전반기에 『야설』(미상, 1900), 『만물록』(미상, 1911), 『일용비람기』(미상, 1932) 등 12종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에서 근대의 것을 제외하면, 19C 전반기에 논의의 편의상 『재물보』도 포함한 13종, 후반기에 13종이 유통된 상황이다. 『파경물경』까지 해서는 총 27종이된다.(17C초 1종, 18C말 1종, 19C 25종)

⁷⁾ 전근대 27종 중에서 편자가 밝혀진 목록은 다음 11종 가량이다. 선조명찬, 『葩經物名』(1책, 1613); 이만영, 『才物譜』(4권 4책, 1798); 이철환·이재위, 『物譜』(1책, 1802); 유희, 『詩物名考』(1책, 1820); 『物名考』(5권 1책, 1824); 정약용, 『竹欄物名考』(1책, 1819. 이본 物名括): 『靑館物名考』(1책, 丁學淵, 1820이전); 이학규, 『物名類解』(1책, 1824); 김좌균, 『松澗貳錄』(2책, 19C중); 심효순·김병규, 『事類博解』(2권 1책, 1855); 황필수, 『名物紀略』(3권 3책, 1870)

·지·인·물을 망라하는 소위 '만물류 물명서' 계통과 둘째, 천지인은 제외하고 동식물이나 의식주의 인공물 등에 집중하는 '사물류 물명서' 계통으로 나누었고, 전자는 『재물보』, 『광재물보』 등 12종이고, 후자는 『물보』, 『물명고』, 『죽란물명고』 등 19종으로 구분하여 참조가 된다.

나아가 두 계통의 성격을 대조하기 위해, 천지인물의 4 범주 아래 각 하위 분류 항목을 정리하였는데, 그 〈물명서의 천지인물 분류개괄표〉(191-193면)를 들여다보면, 천도(天道), 지도(地道), 인사(人事, 인물·인륜·신체 등)의 천지인 관련 범주가 없는 목록은 유희의 『물명고』(1824)가 유일하다.8) 이런 점에서 유희 『물명고』의 성격을 '사물류 물명서'에서 분리하여 '자연물(생물·광물류) 물명서'로 재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방편자(方便子) 유희(柳僖, 1773-1837)의 『물명고(物名考)』(5권 1책, 1824)는 매우 특이한 위치에 있는 물명서이며, 그 동식물과 광물을 편제한 구성뿐만 아니라, 서술 방식에 있어서도 예컨대 해당 식물의 생태 서식과 형태 묘사등이 자세하여 관찰기와 박물기 성격을 띠는 등 조선후기 동식물의 향명 및 생태이해에 매우 돋보이는 저작물이다.

이러한 고심과 지향성 때문인지 그의 물명 분류방식도 매우 새롭고 독특하다.9) 주지하듯 유희는 생물류를 ①유정류(有情類)와 ②무정류(無情類)로 나누었고, 무 생물류를 ③부동류(不動類)와 ④부정류(不靜類)로 나누었다. 이런 어법의 대분류 명 고안이 낯설고 그 유래도 짐작하기 난해하여 선행연구에서 이 문제를 파고들지 는 않아 왔다. 본고는 그렇다면 이 대분류명의 내원과 사상배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고찰하며, 그런 다음 하위 분류 체계의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⁸⁾ 그외 근대시기 『物名類聚式』(미상, 1책, 1927)과 『日用備覽記』(미상, 1책, 1937)의 2종이 더 있으나, 전자는 농산물, 공산물, 철조물 등 근대 문물을 포함하였고, 후자 역시 문방, 의복, 신체, 혼인 등 인륜을 포함하고 있어 논외가 된다.

⁹⁾ 신중진, 2014 「사전학적 관점에서 본 『물명고』와 『재물보』의 영향 관계』, 『진단학보』 120 집에서 양자의 목차와 분류를 비교하면서 대분류명에서의 영향관계는 없다고 보았다.

2. 대분류명 성격에 대한 불교적 유정무정론과 성리학의 태극동정론

1) 『물명고』의 '생활자연물 물명' 분류체계도 개관

유희의 『물명고』가 내세운 분류체계가 엄격하지는 않지만, 필자 역시도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대분류-중분류-소분류'의 3단계 분류법이라 파악되고, 다만 소분류 아래도 일정 부분은 하위분류를 더 설정하여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¹⁰⁾ 필자 분석결과로는 아래에서 보듯, 최종 '4류 7족 13부 685항'의 대중소 분류체계로 집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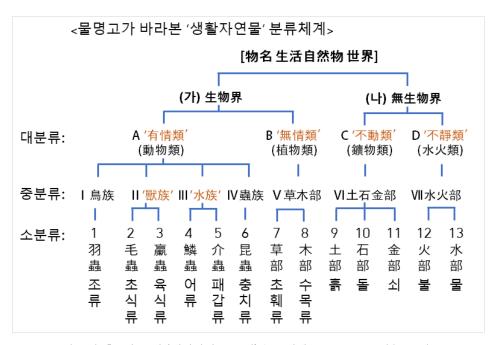
주지하듯, 대분류는 『물명고』가 포괄하려는 외적 자연물의 전체에 대한 범주 설정이다. 제1 '유정류(有情類)' 범주는 동물류, 제2 '무정류(無情類)' 범주는 식물류, 제3 '부동류(不動類)' 범주는 토석금(土石金)의 광물류를 다루었다. 제4 '부정류(不靜類)' 범주는 기체류, 액체류라 하기도 어려운 물과 불에 대한 항목을 수록하여 매우 난해한데, 이를 일단 항목명을 따라 수화류(水火類)라 일컬을 수가 있다. 이처럼 상당히 낯설고 과감한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함께 묶었는데, 이것이 가능한이유는 아마도 생활 주변 자연의 물명을 망라하려는 추동성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한다. 그래서 이 전체는 '물명이 붙은 생활자연물의 분류체계'라 간주되며, 따라서『물명고』는 '물명의 생활자연물 세계'에 대한 탐구서라 하겠다.

후술하겠지만, 그 분류 얼개를 앞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간 범주명에서 『물명고』 원문이 설정한 것은 '수족(獸族)'11)과 '수족(水族)'의 둘 뿐이나, 이를 응용하여 나머지에도 붙이자면, 1조족(鳥族), 2수족(獸族), 3수족(水族), 4충족(蟲族),

¹⁰⁾ 소분류 아래 하위분류 문제에 대해서는 『물명고』의 항목 특성을 세밀히 번역 규명하는 작업과 더불어, 그 의거한 『재물보』의 항목과도 면밀한 비교작업을 요구하므로, 후속 연구로 다루고자 한다.

¹¹⁾ 장서각본이 단지 '獸'라 한 것을 아유가이본에는 '獸族'으로 표기된 점을 참고하여 중간분 류명을 수족(獸族)이라 부르게 된다.

5초목부(草木部), 6토석금부(土石金部), 7화수부(火水部)의 7개 중간분류명이 가능하다.(표 1)



(표 1) 『물명고』의 '생활자연물 물명' 분류체계도 :4류 7족 13부 685항 (''는 원문 표기, 없는 것은 필자주. 김일권, 2020)

내용상 제1, 2 범주는 지각 유무의 정식론(情識論) 관점에 따라 생물류를 A유정(有情)과 B무정(無情)으로 분류한 것이고, 제3, 4 범주는 능동성 유무의 동정론(動靜論) 관점에 따라 무생물류를 C부동(不動)과 D부정(不靜)으로 분류한 체제이다. 정식과 동정에 따라 자연물을 분류한 바가 매우 낯선 방식이어서 그 배경을 추론하여 보기로 한다.

유희가 살았던 1800년 전후는 이미 조선이 건국하고서도 400년이 지나 말기로 향하는 때로, 체제화된 유교전제정치로 인한 사회 모순이 정점으로 치닫는 시기이 고, 조선의 건국이념이자 지배이념이던 성리학이 그 어느 시기보다 조선의 사회를 지탱하는 전체주의적 유일 이념으로 깊숙이 고착 만연하던 시기다. 이러한 시대 배경에서 성리학적 사유 체계 외에 다른 준거를 갖고 생물과 무생물 세계를 들여 다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런 중에 청나라에서 유행하던 고증학의 영향이 18세기 동안 물씬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이른바 실학(實學)이라 불리는 실사구시적 관점이 호사가적 물명의 관심 아래 동식의 자연물 세계를 고심하였던 것은 아닐까 한다. 그러나 실상 실학이 실학적으로 성립 추동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백과전서운동이나 일본의 『왜한삼재도회』 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대상물에 대한 상세한 관찰 분석과 도면 묘사부터 수립되어야 하는데, 조선후기 실학파 사조에는 그러한 정밀화 기반의 박물학적이고 실사학적인 학문 경향성은 찾아보기 어려워, 여전히 경험지식이 아닌 관념지식의 한계 위에 고립무원인 형국이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유희의 『물명고』가 지닌 의의가 있다면 일정한 분류틀로 나눈 생활자 연물의 각 대상에 대해 우리말 향명을 대응시키고, 그 항목의 속성을 비교 관찰해 내려 하였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한반도 생태기반의 자연관찰기를 일정 이상 수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향명(鄉名)적 물명의 추동성과 그에 따른 생활자연 관찰기 측면이 『물명고』의 학술적 시대적 의의를 일정 높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2) 정도전 「불씨잡변」속의 불교적 유무정 지각론과 성리학적 오행통색론

그런 관념 시대의 환경에서 보자면, 유희가 새롭게 자연분류법으로 제시한 유정과 무정의 관점 역시 동시대 성리학의 사유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정(情)은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에서 잘 보이듯이 인간의 본능적 감정이나 욕구를 뜻하는 개념이나, 드물게는 사물의 본성이나 본질을 지칭하여, 『순자』제22「정명(正名)편」에서 '情者, 性之質也.'(정은 본성의 실질이다)¹²⁾라 하였고, 『맹자』권5「등문공상편」에서 '夫物之不齊, 物之情也.'(만물이 서로 똑같지 않은 것은

^{12)『}荀子』 利22「正名篇」:「性者,天之就也,情者,性之質也,欲者,情之應也.以所欲爲可得而求之,情之所必不免也,以爲可而道之,知所必出也.」

사물의 실정이다)라 하였다. 나아가 생물의 본성을 정으로 지칭하여서는 자율의지 내지 지각 작용을 지칭하는 용법도 때로 발생하였는데 주로 불교의 도입으로 말미 암는다.

성리학의 조선사회에서는 사단칠정 중심의 성정론(性情論)이 발달하였음은 주지하는 바이고, 반면 정(情)을 정식(情識)의 지각작용으로 설명하는 용법은 불교사유에서 발달하였다. 이런 문제가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의 『삼봉집』(1397) 「불씨잡변설」에 잘 논의되어 있어 살펴본다.

「불씨잡변」에서, 역(易)의 생생(生生)설로 불교 윤회설을 비판하는 와중에 주인 (삼봉)과 손님이 나눈 답변을 보면, 불씨의 말에 "무정(無情)한 물은 법계성(法界性)을 따라 나오고, 유정(有情)한 물은 여래장(如來藏)을 따라 나온다."고 하여, 무정과 유정으로 자연물을 대비 분리하는 관점을 제기한다. 그래서 "무릇 혈기 있는 자는 지각(知覺)이 동일하고, 무릇 지각이 있는 자는 불성(佛性)이 동일하다."고 하여, 혈기가 있는 생물은 지각이 있고 그래서 불성이 또한 같다고 보았다. 그런데 객이 그대는 만물의 무정(無情)과 유정(有情)을 논하지 않고 혼동하여 말하니 병통이라고 힐난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맹자의 기론(氣論)을 들어, "기(氣)가 천지간에 두루 있어 하나일 뿐이나, 그 기(氣)에 동정(動靜)이 있어 음양(陰陽)으로 나뉘고, 다시 그 음양이 변하고 합하여 오행(五行)을 갖추는 것"이라 하였고, 그래서 주자(周子, 주렴계)가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며,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다. 그런데 대개 오행이 동정(動靜)하고 변합(變合)하는 사이에 그 통색(通塞, 통하고 막힘)과 편정(偏正, 치우치고 올바름)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통정(通正)한 자는 사람이 되고, 편색(偏塞)한 자는 물(物)이 된다. 다만 그 편색 중에 조금 통하는 자는 금수(禽獸)가 되고, 완전히 불통하는 자는 초목(草木)이 된다. 이것이 곧 만물에 유정·무정이 나뉘게 된 까닭"이라 반론하였다.

이 내용은 전적으로 북송(960-1127) 오자(五子)의 한 사람으로서 신유학(성리학)의 우주론 단초를 열어준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태극도설(太極圖說)』에 기반한 논변이다. 여기서 제기된 인(人)과 물(物)의 차이 문제는

조선후기에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으로까지 크게 전개되는 주요 이슈인데, 아마도 유희의 관점에는 이런 논의가 전승되어 있을 것이라 짚힌다.

『태극도설』은 무극(無極)·태극(太極)론을 필두로, '태극(太極)-동정(動靜)-음양(陰陽)-이기(二氣)-오행(五行)-편정통색(偏正通塞)-만물(萬物)'이라는 우주생성론과 존재발생론 관점을 담고 있는 성리학의 기본 텍스트다.¹³⁾ 정도전 역시 이를좇아, 음양 이기(二氣)의 동정(動靜)에 따라 오행(五行)의 질료가 성립된 뒤, 그오행의 기운을 모두 올바로 품수받은 존재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되고, 그 오행정기(正氣)가 막혀 치우친 자는 미물(微物)로 갈리되, 금수 동물은 오행기가 조금통하는 존재이고, 초목은 완전히 불통하여 폐색된 존재로 보았다.

이상의 논변은 불교가 정식(情識)이라는 지각 유무에 따라 무정류와 유정류를 나눈다면, 성리학은 기(氣)의 폐색 작용 정도에 따라 사람과 미물 그리고 다시 동 물-식물을 나눈 것임을 잘 보여준다.

그런 뒤 최종 정리하여 말하기를, "움직이되 고요함이 없는 것(動而無靜者)은 유정물(有情物)을 이르고, 고요하되 움직임이 없는 것(靜而無動者)은 무정물(無情物)이라 이른다. 이렇게 물(物)에 유정·무정이 있는 것은 다 기(氣) 속에서 생기기 때문이니, 어찌 둘이 다르다고 하겠는가?"라고 통합적 반론으로 매듭짓고 있다. 결국 정도전이 성리학 대변자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불교가 말하는 유정·무정의 구분은 실상 성리학의 기론(氣論)과 다르지 않다는 치환 반론으로 결론지은 것이

^{13) 『}太極圖說』全文: 「無極而太極. <u>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u> 分陰分陽, 兩儀立焉. 陽變陰合,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 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 太極本無極也.

五行之生也,各一其性.無極之眞,二五之精,妙合而凝. 乾道成男,坤道成女. 二氣交感,化生 萬物. 萬物生生而變化無窮焉. 唯人也得其秀而最靈. 形旣生矣,神發知矣. 五性感動而善惡分,萬事出矣. 聖人定之以中正仁義而主靜,立人極焉.

故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合其序, 鬼神合其吉凶', 君子修之吉, 小人悖之凶. 故曰: '立天之道, 曰陰與陽. 立地之道, 曰柔與剛. 立人之道, 曰仁與義.' 又曰: '原始反終, 故知死生之說.' 大哉易也, 斯其至矣! 』조선 중기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이 선조를 위해올린 『성학십도(聖學十圖)』(선조원년, 1568,12월)의 제1도가 바로 이 『태극도설』일 정도로 조선 성리학자들의 우주론과 세계관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다.

다.14) 후술하듯 이 불교적 유정무정 개념은 주자가 『서명(西銘)』의 주석 과정에서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 논변을 통해 유희가 불교의 지각 개념인 정식(情識)의 유무에 의한 유무정 개념을 수용하되 성리학의 기론적 동정(動靜)론으로 치환하여, 동물류 범주인제1 유정류(有情類)는 '동이무정자(動而無靜者)'로, 식물류의제2 무정류는 '정이무동자(靜而無動者)' 관점으로 입론한 것이라 집작된다.

전반적으로 정도전이 호교론 관점에서 반론 역설하였으나, 불교의 유정(有情)· 무정(無情)론은 지각 운동의 여부에 따른 분류법으로, 인간이나 동식물이나 간에 생물은 다 한가지의 불성을 지닌 생명체적 존재임을 긍정하는 논변으로 쓰였으며, 반면 성리학의 무정(無靜)·무동(無動)론은 음양오행의 통색(通塞) 정도에 따른 양적 구분으로, 인간과 금수를 구분짓고 나아가 조금의 차이를 중시하여 남여, 존 비, 장유, 품물 등을 구별하고 차별짓는 차등성의 논변 위주이다.

만일 유희가 성리학에 더욱 충실한 용어를 차용하였다면 위에서처럼 제1은 무정류(無靜類)로, 제2는 무동류(無動類)로 하였을 터이나, 그러지 않고 불교 관점의 유정(有情)·무정(無情)으로 제시한 것에는 동식물의 차이를 정(情)의 지각운동으로 구분짓는 불교적 자연분류 관점을 더 승인한 측면이라 하겠다.

¹⁴⁾ 鄭道傳, 『三峰集』(1397) 권9 「불씨잡변설」은 『동문선』 권91 〈佛氏雜辨說序〉(權近) 등으로도 소개되어 조선사회에 널리 읽힌 바가 되었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佛氏雜辨識〉: 道傳, 暇日, 著佛氏雜辨十五篇, 前代事實四篇, 旣成,

客讀之曰:「子辨佛氏輪廻之說,乃引物之生生者以明之,其說似矣.然佛氏之言,『有曰,凡物之無情者,從法界性來:凡有情者,從如來藏來』《按無情者,猶嚴石點頭之類.法界,如云無邊也.有情者,如本覺.衆生心與諸佛性,本爲如來也.》故曰,『凡有血氣者,同一知覺.凡有知覺者,同一佛性』。今子不論物之無情與有情,比而同之.無乃徒費辭氣,而未免穿鑿附會之病歟」曰:「噫!此正孟子所謂二本故也.且是氣之在天地間,本一而已矣.有動靜而陰陽分,有變合而五行具.周子曰:『五行,一陰陽也:陰陽,一太極也』蓋於動靜變合之間,而其流行者有通塞偏正之殊,得其通而正者爲人;得其偏而塞者爲物;又就偏塞之中而得其稍通者爲禽獸;全無通者爲草木.此乃物之有情無情.所以分也.』周子曰:『動而無動,靜而無靜,神也.以其氣無所不通,故曰神:動而無靜,靜而無動,物也.以其囿於形氣而不能相通,故曰物.』

蓋動而無靜者, 有情之謂也: 靜而無動者, 無情之謂也. 是亦物之有情無情, 皆生於是氣之中, 胡可謂之二哉. 且人之一身, 如魂魄五臟耳目口鼻手足之屬, 有知覺運動: 毛髮瓜齒之屬, 無知覺運動. 然則一身之中, 亦有從有情底父母來者, 從無情底父母來者, 有二父母耶?」

3) 북송대 『서명』의 민포물여관과 주자학의 약동약식론 · 유정무정론

주렴계의 『태극도설』에 제시된 동정론(動靜論)이 위에서는 불교의 유정(有情)·무정(無情) 논변에 대응하여 동물과 식물의 생물계를 구분하는 분류법으로 나아간 것이었다면, 이와 또다른 방향으로 『태극도설』의 동정론이 이제는 광물류 등의무생물계를 설명하는 분류틀로 나아가는 문제를 살펴본다.

주렴계와 함께 또한 북송 오자로 존승된 장횡거(橫渠 張載, 1020-1077)가 『서명 (西銘)』에서 '민포물여(民胞物與)'¹⁵⁾라는 민물일체관을 말하였고, 이〈동포장구(同胞章句)〉에 대한 주자(1130-1200)의 주석인 『서명해(西銘解)』(1188)는 '凡有形於天地之間者, 若動若植, 有情無情, 莫不有以若其性, 遂其宜焉.'(무릇 천지 사이 유형의 것은 동물이거나 식물이거나, 정이 있거나 정이 없거나 막론하고, 모두 그 본성을 순히 하여 그 마땅함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여,¹⁶⁾ 천지만물 중에 형체 있는 존재를 '약동・약식(若動若植)과 유정・무정(有情無情)'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는 불교적 개념인 유정무정론이 주자를 통해 남송대 성리학에 도입된 면모임을 시사하므로, 향후 이 대목을 심화고찰할 필요가 있다.

조선조 성리학자의 자연관에는 주자의 이런 인식이 수용되어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어 있다.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의 『대산집(大山集)』(1802년 간행)에서, 인물(人物)과 동식(動植) 및 유정(有情)과 무정(無情)으로 분류한 것은 그런 흐름이다17)

¹⁵⁾ 장횡거의 『西銘』은 『정몽(正蒙)』 「乾稱篇」의 일부분으로, 민포물여(民胞物與)의 사상을 통해 우주를 대가족으로 보는 낙천(樂天) 순명(順命)의 세계관을 피력하였다. 그 첫머리의 「乾稱父, 坤稱母: 予茲藐焉, 乃混然中處. 故天地之塞, 吾其體. ;天地之帥, 吾其性. 民, 吾同胞; 物, 吾與也.」 대목 중 '民吾同胞, 物吾與也.' 구절은 '백성은 나의 동포이고, 만물은 나와 함께 천지에서 생한 것'이라는 민물(民物) 동질관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¹⁶⁾ 朱熹,「西銘解」(『朱子全書』 利13책,上海古籍出版社・安徽人民出版社,2002),141-147면. 『西銘解義』(1188) 로도 칭한다.: 이를 재수록한 明 李文炤(1672-1735)의 『近思錄集解』 (14권) 卷2 「爲學」89.横渠先生條:89-3. 『民吾同胞,物吾與也』、{朱子曰,…惟同胞也故, 以天下爲一家,中國爲一人,如下文之云.惟吾與也故,<u>凡有形於天地之間者,若動若植</u>,有情 無情,莫不有以若其性,遂其宜焉.此儒者之道,所以必至於參天地,贊化育,然後爲功用之全, 而非有所强於外也。}

그렇지만, 주자에 의해 동물·식물 외에 유정·무정 개념이 도입되었지만, 이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아 모호하다. 일견 유정(有情)은 생물류로, 무정(無情)은 무생물류를 말하는 듯하나, 이미 그 앞에 동식물을 지칭하는 약동약식이 언급되어 있어 분류상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유정을 동물류로, 무정을식물류로 보는 것 역시 중복된다.

이에 대해, 김신겸(金信謙, 1693-1738)의 『증소집(榴巢集)』은 주자의 『서명』 해석을 수록하면서, "유정(有情)은 동물(動物)을 지칭하여 말한 것이고, 무정(無情)은 식물(植物)을 지칭하여 말한 것인가"하여 후일 유희의 논법과 같은 관점을 말하면서도, "주자의 뜻이 과연 어떠한지를 잘 모르겠지만, 우견으로 유정(有情)은 생의자(生意者)를 통칭한 말이고, 무정(無情)은 생명이 없는 기와나 조약돌(枯槁瓦礫) 같은 부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18) 이는 무정류(無情類)를 무생물인 광물의 금석류를 지칭하려는 생각이어서 주목된다.

그런 때문인지, 조위한(趙緯韓, 1567-1649)의 『현곡집(玄谷集)』(1650 간행)에서는 초목(草木)과 금석(金石)을 아울러 무정(無情)하고 무식(無識)한 존재로 보았고, 그 이유는 둘다 혈기(血氣)의 운동이 없고, 또 지각(知覺)의 양능(良能)이 없기 때문이라 하였는데, 정(情)을 지각운동하는 식(識)으로 간주한 것이다.¹⁹⁾ 이종

¹⁷⁾ 李象靖, 『大山集』(1802년) 권30 「書」〈答金直甫問目〉 중: 『西銘』大義, 人物并生於天地之間, 惟人得形氣之正, 保性命之全, 與天地并立爲參, 故天地間四海八荒, 皆其境界, <u>毋論人物動植、有情無情</u>, 吾惻怛慈愛之理自然流通普遍, 無所隔礙, 但其所施則親疏異情, 貴賤殊等, 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云云.

¹⁸⁾ 金信謙(1693-1738),『檜巢集』(10권 5 型) 권7 「書」〈答李鳳祥〉중: 氣一也. 以待對言則專屬於天, 以流行言則無間於地. 前後所言, 各有攸當. 來諭一氣云者, 有語病. 《『西銘解義』云: 凡有形於天地之間者, 若動若植有情無情, 莫不有以若其性, 遂其宜焉. 有情指動物而言, 無情指植物而言否. 抑或有情統指有生意者而言, 無情則又下此一等若枯槁瓦礫之屬否. 若其性, 是指動物而言. 遂其宜, 是指植物而言否. 或有情者當若其性, 無情者當遂其宜否. 或統指若動若植有情無情而言否.}

未知朱子之意果如何,而愚意則,有情統指有生意者而言,無情指枯槁瓦礫之類,若其性遂其宜,的是渾說,不可分屬. {『西銘解義』中於予茲藐焉處. 只言人而不及物,於吾其軆吾其性處,兼言人物者何也,豈予字與吾字亦有分別而然耶,抑別有以也.}

¹⁹⁾ 趙緯韓(1567-1649)、『玄谷集』(1650) 권12 「策題」 중〈變化氣質〉: 問萬物芸芸、各稟亭毒、

휘(李種徽, 1731-1797)의 『수산집(修山集)』(1803 간행)에서도 만물 중 가장 무정 (無情)한 것이 목석(木石)이고, 반대로 가장 유정(有情)한 것이 사람이라 하였다.²⁰⁾ 유희의 앞시대에 제기된 이런 여러 논변이 『물명고』의 대분류명 설정에 일정 참조되었을 것이라 충분히 추론된다. 요컨대, 조선후기 유학자들 사이에 유정과 무정을 생물과 무생물 혹은 동물과 식물로 보려는 생각도 개진되었으나, 주자의 『서명해』가 약동약식과 유정무정을 나란히 언급함에 따라 생물분류법상 중복성 문제로 인해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그런 중에 18세기 초 김신겸이 유정은 동물류, 무정은 식물류를 지칭하는 듯한 생각을 잠시 언급하였고, 19세기 초 유희는 과감하게 약동약식과 유정무정을 동어반복적 설명으로 간주하여, 유정무정을 동물류와식물류를 지칭하는 대분류 개념으로 새로이 설정한 모양새가 되었다. 다만 이는결과론적 해석이어서 추후 그 과정에 대한 더 세밀한 재검토를 요한다.

4) 『태극도설』의 태극동정론과 능동능정론

한편 송익필(宋翼弼, 1534-1599)의 『귀봉집(龜峯集)』(1642 간행) 권3〈태극문(太極問)〉의 논변은 좀 다른 방향으로 입론되어 있다. 곧 "오행 중에 수화(水火)는 능히 움직일 수가 있고, 목금토(木金土)는 능히 움직을 수가 없는 자인데, 무슨 뜻인가?"라는 물음이 있고, 그 답변으로, "만물이 하늘에 속한 것은 동(動)하고, 땅에 속한 것은 정(靜)한다. 수화목금은 땅에 속한 것이니 마땅히 정(靜)한다. 수화가 혹 움직이는 것은 기(氣)에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동이무정자(動而無靜者)는 천(天)이고, 정이무동자(靜而無動者)는 지(地)"라고 구분

千變萬化,未始有極,或鱗而變甲,或羽而化毛,則此氣類之相感,物化之當然,非造物小兒之 戲劇於其間耶,人爲最靈而首出庶物,則若不類於禽蟲,而牛哀之化虎,杜宇之爲鵑,亦同歸於 雀爲蛤鷹化鳩之類耶,以血氣惷動之物,替相變易,輪回往復,皆出於一氣之流行,則雖螻蟻之 化爲龍虎,亦不足怪,至於草木金石,無情無識,漠然冥然,旣無血氣之運動,又無知覺之良能, 而與有情有識者,相爲終始,出入變化者固不可勝記.

²⁰⁾ 李種徽(1731-1797), 『修山集』(1803) 권9「祭文」〈祭伯氏文〉중:「嗚呼. 號物之最無情曰木石. 爲其斲其一面而頑然不省. 披其一枝而冥然不覺也. 反是而物之最有情之號曰人.」 본고의 문집류 검토는 고전번역원 홈페이지 활용함.

짓는다.21)

이 대목은 오행의 다섯 질료를 동정(動靜)론에 따라, 수화(水火)는 능동자(能動者)로, 목금토(木金土)는 불능동(不能動) 곧 능정자(能靜者)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기한 것이다. 비록 그 답변이 자연물 분류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18세기 중반의 성리학자 논변에서 물과 불을 능동자(能動者)로 별도 구분하려는 인식으로서 중요하다.

덧붙여, 송익필은 "무릇 물에 형체가 있으면 그 이름이 있기 마련이다. 창창한 것은 하늘이 되고, 박후(博厚)한 것은 땅이 되고, 높은 것은 산이 되고, 깊은 것은 바다가 된다."고 하여, 물명(物名)의 관점을 중시하였으며, 인간에 대비되는 미물의 종류에 대해 "무릇 정이천(程伊川) 선생이 본연과 기질의 이성(二性)으로 구분한 것은 무엇인가? 위로 성현으로부터 아래로 토석곤충(土石昆蟲)에 이르기까지모두 일성(一性)을 지니는가?"라고 하면서, '토석곤충(土石昆蟲)'을 언급한 점도주목된다.

이렇게 수화와 목금토를 분리하여 보는 견해는 남한호(南漢皜, 1760-1821)의 『성재집(誠齋集)』에서도 거론되어 있는데, 우선 천지간에 있는 유정(有情)·무정(無情)과 약동(若動)·약식(若植)에 대해, 토석(土石)과 초목(草木)을 허령(虛靈)한 것으로 대비한 점이 참조된다.²²⁾ 또한 "수화(水火)는 유동(流動)하여 양(陽)에 속

²¹⁾ 宋翼弼(1534-1599),『龜峯集』(1642) 권3『雜著』〈太極問〉:

①問. 五行之中,惟水火能動,而木金土不能動者,亦何義也? 合天地人物而就動靜上總論之,動而無靜,靜而無動者,是何物而稟何氣而然也? <u>動而無動,靜而無靜者,亦何物也</u>? 動而不得其動之理,靜而不得其靜之理,可靜而動,可動而靜者,亦何物也? 可動而動,可靜而靜,靜而不失其靜,動而不失其動,一動一靜,自合其中者,亦何名也?

答. 物之屬乎天者動, 屬乎地者靜. 水火木金, 屬地者也, 宜靜. 而水火之或能動者, 以不離於氣也. 大抵動而無靜者, 天也. 靜而無動者, 地也. 動靜者, 氣也. 動靜而無動靜者, 理也. 動靜之 反其理者, 桀跖也. 動靜之合其中者, 堯舜也.

②問. 凡物,有其形則有其名. 蒼蒼者爲天,博厚者爲地. 高者爲山,深者爲海. 未知太極其形如何而有此名也. 圓耶方耶,高耶下耶,大耶小耶, 斜耶正耶. …

③問. 太極之與陰陽,取譬一身上性與心,則心是太極耶. … <u>抑一物而二其名耶. 孟子只說一性,而伊川之以本然氣質分說二性,何耶. 上自聖賢,下至土石昆蟲,</u>咸得一性. 而今就賦人處,別作二性,何耶.

하고, 금목토(金木土)는 정형(定形)이 있어 음(陰)에 속한다"고 구분하고 있다.

다른 한편, 부동(不動)과 부정(不靜)이라 일컫는 용법은 『태극도설』의 태극동정론 아래, 대개는 '천도(天道)는 부동(不動)하고 지도(地道)는 부정(不靜)하다'는 관점으로 쓰였고, 또는 태극 음양의 동정(動靜)을 설명하면서, "동(動)하나 정(靜)하지 않고, 정(靜)하나 동(動)하지 않는다(動而不靜, 靜而不動)"는 연계성 관점으로도 쓰였다.23) 임운(林芸, 1517-1572)의 『첨모당집(瞻慕堂集)』(1669) 권2「책문(策問)」의 〈천하 이치(天下之理)〉에서 "하늘은 동(動)에서 생하고, 땅은 정(靜)에서 생한다. 그러나 그 작용은 하늘이 정(靜)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땅은 동(動)하지 않음이 없었다."고 하여, 역시 천정(天靜)과 지동(地動)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24)

5) 지각과 능동에 따른 대범주 분류명 종합

이상 조선조 성리학자들의 논변을 정리하면, 첫째, 불교학에서 지각(知覺) 내지식(識) 관점으로 쓴 정식(情識) 개념에 따라 유정(有情)·무정(無情)의 지각 분류론이 성립되어 있었고, 이를 성리학이 수용하되『태극도설』의 동정(動靜) 이기론

²²⁾ 南漢皜(1760-1821),『誠齋集』 刭7「書」〈答族弟公宣 履穆○甲戌〉(1814년): 盖以虚靈不昧 屬氣. 而其中所具者. 是理也. 是所謂兼理氣而非分了虛靈不昧. 一半屬理. 一半屬氣也. 陳北 溪說理與氣合. 所以虛靈. 泛看似無病. 而若究其說. 則天地間有情無情. 若動若植. 何莫非理 與氣合之物事耶. 若曰. 所以虛靈者. 專由於理與氣合. 則土石草木. 是亦理與氣合之物. 而何 物無此虛靈也. 必人得其氣之正通. 然後有此虛靈具得衆理也. 於是知北溪之論. 言未盡而理有 遺也. 今君以此說爲不可廢. 必有真的之見. 更願聞其詳焉.

^{28「}雜著」〈太極圖說註記疑〉 중: 太極圖陽變陰合註, 錯言動陽而靜陰之義. 丈席<u>以水火為流動而屬之陽, 金木土爲有定形而屬之陰</u>. 此似然矣. 然是就五行成形之始終堅脆而言, 則以此爲說, 固無不可. 若就氣質而言, 則水火何嘗不靜, 而金木土何嘗不動乎. 以是而論. 錯言動靜之義. 恐未精.

²³⁾ 權相一(1679-1759), 『淸臺集』(1797 간행) 권8〈答李仲久別紙〉: 則是太極不動, 而動者是陽也. 太極不靜, 而靜者是陰也. 與朱子所謂此箇道理. 便會動而生陽. 靜而生陰也.

²⁴⁾ 林芸(1517-1572),『瞻慕堂集』(1669 간행) 권2 「策問」〈天下之理〉: 夫太極,動而生陽, 故天生於動,而以動爲體,靜而生陰,故地生於靜,而以靜爲體,然其用則天未嘗不靜,地未嘗不動,是以一元之氣,升降於太空之中,而地乘水力,與元氣相爲升降,而春遊則過東方五千里,秋遊則過西方五千里,至於夏冬,莫不皆然,則是豈非至靜之中.

(二氣論)으로 유비 치환하여 받아들였으며, 여기에다 주자가 『서명해』에서 약동약 식(若動若植)과 불교적 유정무정 논의를 덧붙였고, 그런 끝에 유정은 약동(若動)의 동물류를, 무정은 약식(若植)의 식물류를 지칭 분류하는 개념으로 전개되었다고 보인다.

둘째로, 부동(不動)과 부정(不靜) 개념은 유정·무정론과는 또다른 별개의 측면에서 거론되는 성격이고, 대개는 천도(天道)와 지도(地道)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쓰였다. 그럼에도 그『태극도설』의 천지 음양 동정론 기반 위에 오행의 만물 생성설이 크게 부각되면서, 그 만물의 질료가 되는 오행의 특성을 다시 음양으로 구분하여, 양성(陽性)의 수화(水火)와 음성(陰性)의 목금토(木金土)로 분리하는 관점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전자는 유동(流動)적인 부정류(不靜類)로, 후자는 정형(定形)적인 부동류(不動類)로 구분하기에 이르렀다. 유희가 무생물계를 분류하는 관점으로 부정(不靜)과 부동(不動) 개념을 차용한 것은 바로 이런 지점이 아닐까추론된다. 무엇보다 이를 자연물의 분류법으로 직접 사용한 것은 유희의『물명고』가 처음일 정도로 상당히 창발적인 안목이다.

정리하면, 『물명고』의 제1 유정류(有情類)는 동이무정(動而無靜)의 약동(若動) 동물류를 지칭하고, 제2 무정류(無情類)는 정이무동(靜而無動)의 약식(若植) 식물류를 지칭한다. 제3 부동류(不動類)는 불능동(不能動)하는 정형(定形)의 목금토류를 지칭하고, 제4 부정류(不靜類)는 능동(能動)의 수화류를 지칭하는 것이라 정리된다. 단, 오행의 목금토 중 목은 초목의 식물류로 연결되므로 제외되고, 대신에금토(金土)와 동일하게 정형적 고체물 특성을 지니는 석(石)으로 대체하고서 토석금(土石金)을 제3의 부동류 정형물로 분류 조정한 면모이다.

이상이 『물명고』가 대분류명으로 제시한 명명법의 고찰 개요이고, 간략한 뜻으로 풀이하면 다음 정도가 된다.

○ 지각[情識]의 유무 - 제1 유정류: 지각작용이 있는 동물류

- 제2 무정류: 지각작용이 없는 식물류

○ 능동성의 유무 - 제3 부동류: 움직이지 않는 고정성의 광물류

- 제4 부정류: 정적이지 않는 유동성의 수화류

3. 『물명고』의 대중소 범주와 하위 분류체계 특성

1) 『물명고』의 중소 범주 문제

다음으로 대분류 아래 제시된 『물명고』의 하위 분류 문제를 살펴본다.

『물명고』를 소개한 홍윤표의 글(2000)에서 유희의 『물명고』는 한글 표제어가모두 1,660개나 되고, 이만영의 『재물보』 계통을 따른 것임을 자세히 논의하였다. 곧 『재물보』의 물보(物譜)와 지보(地譜)에서 그 표제어와 주해(註解)를 취사선택하여 정리 편집하였고, 특히 유희의 유정류와 무정류는 「물보」(권7, 8)에서, 부동류와 부정류는 「지보」(권1)에서 취사선택하면서 하위 15개 부류로 정리한 것이라파악하였다.25)이 논의처럼 『물명고』의 하위 분류와 수록 항목의 특성을 설명하기위해서는 양자의 비교연구가 필수이나 매우 방대한 분량의 비교를 요하는지라 다음 기회로 돌리며, 본고는 제한된 범위에서 접근한다.

『물명고』의 하위 분류 체계를 어떻게 가늠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데,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15개 부류(홍윤표, 2000), 11개 부류(정승혜, 2014), 13개 혹은 14개 부류(윤향림, 2018), 13개 부류(최경봉, 2005; 조영준, 2016) 등으로 설명하여 왔다. 그만큼 유희의 분류체계를 매기는 작업이 어려움을 시사한다. 필자 역시 재검토한 결과, 수족(獸族)과 수족(水族)은 중간 분류명으로 보아야 한다²⁶⁾는 견해가타당하다 여기며, 그렇다면 나머지 소분류에 대해서도 중분류명을 매겨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에 우충(羽蟲)은 『재물보』가 "羽蟲: 凡飛鳥謂之羽蟲, 禽: 二足而羽, 鳥: 羽禽總名, 飛肉: 禽鳥[太玄]."(권7 物譜 제2)²⁷⁾이라 정의한 바를 참조하여, 우금(羽禽)의 총명으로 설명한 '조(鳥)'를 내세우고, 수족(獸族)처럼 유희가 '족(族)'을 붙이고 있으므로, 우충의 중간분류명을 '조족(鳥族)'이라 하면 어떨까 한다.

²⁵⁾ 홍윤표, 2000「유희의『物名攷』,『어문연구』28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77-304면.

²⁶⁾ 황문환, 2016 「유희의 『재물보』 비판을 통해본 『물명고』의 차별성 , 94면.

²⁷⁾ 이 부분을 유희의 『물명고』는 '羽蟲, 飛鳥, 禽・鳥・飛肉仝.'으로 간략히 초략하였다.

다음 곤충은 『재물보』가 '昆蟲: 昆,本作蜫,蟲之總名. 豸: 音池. 有足曰蟲,無足曰豸.'라 한 점을 참조하면,²⁸⁾ 발이 있는 충류와 거머리처럼 발이 없는 치류(豸類)를 포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에 중간분류명을 충치족(蟲豸族) 혹은 충족(蟲族)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덧붙여, 곤충(昆蟲)이라 대개 표기하지만, 곤(昆)은 맏이(兄), 많은 무리(群,衆多)란 뜻이고, 그에 비해 곤(蜫)은 『설문해자』에서 '蜫,蟲之總名也.'로, 『설문해자주』는 '蟲下曰,有足謂之蟲,無足謂之豸.'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곤충은 벌레류의 총명인 곤충(蜫蟲)을 이르고, 그 하위에는 유족과 무족의 충치류(蟲豸類)가 분류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전통시대에 식물류를 가장 주목하고 오랫동안 발달시켜 온 분과학은 단연 한의의 본초학 진영이며, 『향약집성방』이나 『동의보감』을 비롯한 본초서(本草書) 가 모두 부목(部目)으로 분장 표기하므로, 본고 역시 이를 따라 소분류는 초부(草部), 목부(木部)로, 중분류는 초목부(草木部)라 칭하고자 한다.

2) 무생물계 분류 문제

다음은 무생물계에 대한 분류 문제이다. 이에 대한 분류도 또한 본초서 계통에서 발달하였고, 약용에 쓰일 약재 분류를 위해 초목류, 금수류 외에 광물류 부문을 넓게 포괄한 것이다. 다만 이를 지칭하는 명칭이 여럿인데, 당송대 본초서를 집성한 『정화증류본초(政和證類本草)』(1116)는 옥석부(玉石部)로, 이를 참조한 조선초『향약집성방』(1433)은 석부(石部)로, 최대 본초서인 명말 이시진(李時珍, 1518-1593)의 『본초강목』(1590)은 수·화·토·금석의 4부(금석을 나누면 5부)로, 조선중기 허준(許浚, 1539-1615)의 『동의보감』(1613)은 수·토·옥·석·금의 5부로분장하였다. 이런 흐름과 비교할 때, 『물명고』의 토·석·금·화·수 5부 체제는수부(水部)와 화부(火部)를 표출한『본초강목』의 것과 가장 상통한다. 『동의보감』에는 화(火)와 관련된 부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표 2)

^{28) 『}물명고』는 '昆蟲: 一年小蟲'이라 간략히 언급하였고, 줄을 바꾼 부속 설명에서 '豸: 音地. 有足曰蟲, 無足曰豸.'라 언급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증류본초』 (1116)	1玉石 部	2草 部	3木 部	4人 部	5獸 部	6禽 部	7蟲魚 部	8果 部	9米穀 部	10菜 部						
『향약집성방』 (1433) 『향약본초편』	1石 部	2草 部	3木	4人 部	5獸 部	6禽	7蟲魚 部	8果	9米穀	10菜						
『본초강목』 (1590)	1水 部	2火 部	3土 部	4金石 部	5草 部	6穀 部	7菜 部	8果 部	9木 部	10服 器部	11蟲	12鱗	13介 部	14禽 部	15獸 部	16人
『동의보감』 (1613) 『탕액본초편』	1水 部	2± 部	3穀 部	4人 部	5禽	6獸	7魚 部	8蟲	9果 部	10菜 部	11草 部	12木 部	13玉 部	14石	15金 部	
『재물보』 (1798)	1土 部	2水 部	3田	4金 部	5玉 部	6石 部	7火 部	8穀 部	9穀 部	10菜 部	11果 部	12草 部	13木 部	14竹 部		
『물명고』 (1824)	1羽 蟲	2毛 蟲	3贏 蟲	4鱗蟲	5介 蟲	6蜫 蟲	7草 部	8木 部	9土 部	10石 部	11金 部	12火 部	13水 部			

〈표 2〉 본초서 계통의 분장 편제 비교

『물명고』는 이들 부목에 대해 매우 간단한 정의를 붙이는 정도인데, 토(土)는 '地之無石處. 흙'이고, 석(石)은 '地之凝堅者固. 돌'이고, 금(金)은 '生于土可以從革者摠稱爲金.'이고, 화(火)는 '所以爇物. 불'이고, 수(水)는 '天地之津液流下者. 물'이라 설명하였다.²⁹⁾ 그러나 왜 수화와 토석금을 별도로 묶었는지에 대한 분류 설명이 없다

이에 『본초강목』의 〈범례〉에서 "수·화(水火)를 머리로 삼은 것은 수화가 만물의 선행물이기 때문이고, 토(土)는 만물의 어미라서 다음으로 하고, 금·석(金石)은 토(土)에 종속시킨다." 하였고, 〈수부〉 설명에서 "물은 만물의 근원이고, 땅은만물의 모태여서, 음(飮)은 물에서 자량을 삼고, 식(食)은 땅에서 자량을 삼는다." 하였고, 〈화부〉 설명에서 "수·화는 백성을 기르는 까닭이자 백성의 삶이 의지하는 것"이라 한 점을 참조하면,30) 만물의 질료 원인자인 수·화와 그 결과의 생성

^{29) 『}재물보』는 더욱 간단하여, "土: 흙. 水: 地之血氣. 金: 生于土, 五色金皆謂之金.' 玉: 寶玉陽精之純. 石: 石骨. 火: 南方之行."라 하였고, 이를 별도로 묶는 분류 설명은 없다.

^{30)『}本草綱目』 312 〈凡例〉: 「一. 今各列爲部, 首以水・火, 次之以土, 水・火爲萬物之先, 土 爲萬物母也. 次之以金・石, 從土也.」

邓5· 《水部》: 「蓋水爲萬化之源,土爲萬物之母. 飲資於水, 食資於土. 飲食者, 人之命脈也, 而營衛賴之. 故曰: 水去則營竭, 穀去則衛亡. 然則水之性味, 尤愼疾衛生者之所當潛心也, 今

물인 토 · 석 · 금을 별개로 묶는 인식이 성립되었던 것임을 보게된다.

따라서 『물명고』가 토석금부와 수화부를 분리하여, 부동류와 부정류로 분류한 배경에는 본초서의 분류방식을 준용한 것이라 하겠고, 그런데 화부(火部)가 『동의보감』에 없는 관계로 『본초강목』의 계통을 따라 편제한 것이라 추론된다. 그리고 중간분류명은 『본초강목』 설명을 참조하여 수화부(水火部)와 토석금부(土石金部)로편의상 부를 만하되, 이 둘을 묶어서는 성격상 광물류 정도로 포괄할 수가 있다.

이렇게 광물류의 분류명은 본초서에서 차용하였지만, 내용상 수록된 항목을 비교하면, 서로의 상관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표 3)

수부(水部)의 경우, 『본초강목』과 『동의보감』이 약용으로서 빗물(雨水)이나 단이슬(甘露), 정화수 등 생활 영위와 약식(藥食) 관련을 세분하여 접근하는 반면에, 『물명고』는 샘, 우물, 도랑, 못, 천, 나루, 강, 바다 등 실상 물의 분류라기보다 물이 땅에 흐르고 모이는 등의 외연적 수세(水勢) 형태에 더 집중되어 있다.

화부(火部) 역시 『본초강목』이 부싯돌, 숯불, 댓불(竹火), 쑥불(艾火) 등 약방 관련에 집중하는 반면에, 『물명고』는 햇빛, 번갯불, 귀신불, 땅속불, 용화(龍火) 등 초자연적 종류에 더 주목하여 차이를 보인다.

나머지 토부, 옥부, 석부, 금부 역시 같은 측면보다 서로 다른 측면이 강하다 여겨져, 『물명고』의 관심 방향이 전반적으로 본초학적 광물류 수록보다는 자연신화학적인 물명 구성에 더 집중한 특성을 보인다. 물론 넓게 볼 때는 『물명고』역시본초서의 광물류적 관점을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물명고』가 담고 있는 물명의 자연물은 동물류, 식물류, 광물류의 세 범주로 크게 구성되는 면모라 할 수가 있다. 더 자세한 문제는 『재물보』와의 비교 및 세부 항목의 서술 내용까지 해석 분석하고, 다른 본초서의 내용 역시 파악하여야 가능할 것이다. 이 역시 너무 작업량이 많아 후일의 기회로 돌린다.

集水之關於藥食者, 凡四十三種, 分爲二類: 曰天, 曰地,」

제6권〈火部〉: 「李時珍曰: 水火所以養民, 而民賴以生者也. 本草醫方, 皆知辨水而不知辨火, 誠缺文哉. ··· 今撰火之切於日用灸 者凡一十一種, 爲火部云.」:中華中醫藥學會編, 2008『本草綱目』(上中下), 新校注本 제3관, 華夏出版社.

〈표 3〉본초서와『물명고』의 수화, 토석금의 수록 항목 대조

	水部	火部	土部	玉石部	金部	계
『본초 강목』 (1590)	雪、雹、夏冰、神水、半天河、屋漏水의 13종 地水:流水、井泉 水、	燧火, 桑柴 火,炭火,白 炭,蘆火,竹 火,艾火,神 針火,火針, 燈火,燈花, 燭燼의 14항	赤 禁 土, 黄土, 黄土, 黄土, 黄土, 黄土, 黄土, 黄土, 黄土, 黄土,	陽起石、磁石、玄石、代赭石、 禹餘糧 등 石部 40항 食鹽、戎鹽、光明鹽、鹵城、凝 水石、玄精石 등 鹵石 23항	錫各脂,銀壽,銀青,銀青,銀青,銀光銅,青,粉銅青,粉配,銀馬,香,粉配,香丸, 水丸, 水丸, 水丸, 水丸, 水丸, 水丸, 水丸, 水丸, 水丸, 水	239항
『동의 보감』 (1613)	論水品、 井華水、 寒泉水、 菊花水、 東泉水、 有電水、 名諸水、水水、 夏水、 方諸水、 半天屋水、 多諸水、 水、 本子屋水、 本子屋水、 神田、 東京水、 本井水、 川原、 本、 、 、 、 、 、 、 、 、 、 、 、 、 、 、 、 、 、		土, 西, 井河中縣 鐵灰, 百霜, 上, 上, 上, 上, 下, 中, 上, 下, 上, 下, 上, 下, 上, 下, 上, 下, 上,	玉屑,玻瓈,珊瑚,真珠의 4항 朱砂,雲母,石鍾乳,攀石,綠 禁 黑礬,紅礬,空青,骨石, 石磨,雄黄,端石,磁石,磁石,磁石, 碳石, 寒水石,磁石,磁石,磁石,碳石,。 陽起石,寒水石,磁石,磁石,、水 份, 世确,馬牙砂,塩、流石,络。 大陰玄精石,青鹽,青碳石,水 、大陰玄精石,青鹽,代赭石,木 、大木、石,蛇含石,水色石,水木、石灰,石灰,石灰,石灰,石板。 石石,水色石,黑名具,烏古瓦,白谷水石,無名具,烏古瓦,白谷子의 55항	水銀、黄霜、灰屑鏡自柔屑粉,鹹漿、轄故祭、、	141 항
『물명 고』 (1824)	·溆, 8津, 9濱, 0 江, 11河, 12海, 13	石火, 3鑽燧 火, 4積油火, 5樟脂火, 6 獅子腋下火, 7雷霆火, 8	2埴, 3墳, 4舊 壁土, 5塗泥, 6田, 7塵, 8沙, 9灰, 10諸土 異化의 10항	1玉, 2瑪瑙, 3琅玕, 4玻瓈, 5 琉璃, 6火齊, 7偄石, 8烏石, 9 磬石, 10水中白石, 11礪石, 12 磁石, 13空青, 14丹砂, 15雄 黄, 16乳石, 17石膏, 18滑石, 19石脂, 20禹餘粮, 21石芝, 22 珊瑚樹, 23怪石, 24花蘂石, 25 石灰, 26石炭, 27石硫黄, 28礜 石, 29石膽, 30鹽, 31硝石, 32 硇砂, 33淋石, 34瓦器의 34항	1黃金[금], 2 銀[흰쇠], 3赤 銅[구리], 4鉛 [털납], 5鐵	76항

3) 유정류(동물계)의 소분류 범주 문제

다음은 소분류명과 분류 방식 및 항목 내용에 대한 문제를 살펴본다.

제1 유정류의 동물 범주 아래의 소분류는 제1 우충(羽蟲), 제2 모충(毛蟲), 제3 나충(贏蟲), 제4 인충(鱗蟲), 제5 개충(介蟲), 제6 곤충(昆蟲)이 편제되어 있다.

이중 곤충을 제외한 다섯 부류는 중국 고대 진한시대에 성립된 오충(五蟲)의 동물분류법을 그대로 수용한 내용이다. 오충설(五蟲說)은 전국말 제나라 직하학궁 (稷下學宮)의 좨주(祭酒, 총장이란 뜻) 추연(鄒衍)이 처음 제창한 오덕종시(五德終始)의 오행학설이 진한대를 풍미하면서,³¹⁾ 진시황의 대일통 이론으로 저작된 『여씨 춘추』(BC239)에서 계절과 방위에 응하는 동물 상징체계로 본격 등장한 이론이다.

곧 1년 12개월의 월령론을 처음 정립한 『여씨춘추』「십이기(十二紀)」는 천자가 마땅히 갖추고 시행하여야할 제반 덕목을 천문, 지리, 인사, 만물로 다양하게 수록 정리하였고, 그런 중에 동방목(東方木)의 봄철(孟春, 仲春, 季春)은 인충(鱗蟲)으로 표상하였고, 남방화(南方火)의 여름(孟夏, 仲夏)은 우충(羽蟲)으로, 중앙토(中央土)의 계하(季夏)는 나충(倮蟲)으로, 서방금(西方金)의 가을(孟秋, 仲秋, 季秋)은 모충(毛蟲)으로, 북방수(北方水)의 겨울(孟冬, 仲冬, 季冬)은 개충(介蟲)으로 대응시켰다.32) 이는 천지인물의 4재(才)가 동질적 감응과 유비(類比)를 이룬다는 천인감응사상이 확대된 국면이다. 이러한 『여씨춘추』의 12월령론은 『예기』에 「월 령편」으로 재수록 전승되면서 널리 유포되었다.

이 오충설이 전한무렵 성편된 『대대례기(大戴禮記)』 「역본명(易本命)」에서는

春紀: 孟春之月, 日在營室, 其蟲鱗. 仲春之月, 日在奎, 其蟲鱗. 季春之月, 日在胃, 其蟲鱗.

夏紀: 孟夏之月, 日在畢, 其蟲羽, 仲夏之月, 日在東井, 其蟲羽,

季夏紀: 季夏之月, 日在柳, 中央土, 其日戊己. 其帝黃帝. 其神后土. 其蟲倮.

秋紀: 孟秋之月, 日在翼, 其蟲毛. 仲秋之月, 日在角, 其蟲毛. 季秋之月, 日在房, 其蟲毛. 冬紀: 孟冬之月, 日在尾, 其蟲介. 仲冬之月, 日在斗, 其蟲介. 季冬之月, 日在婺女, 其蟲介.

:陳奇猷 校釋, 2002 『呂氏春秋新校釋』(上下), 上海古籍出版社.

³¹⁾ 김일권, 2007 『동양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예문서원, 제2장 공간의 역사와 천문학: 천문과 지리의 고대 사상사 중 5. 하늘의 사방위 우주론과 사신도의 천문사상 참조.

^{32) 『}呂氏春秋』 「十二紀」 제1~제12

개충과 뜻이 같으나 표기가 다른 갑충으로 말하면서 역시 동일한 오충설을 실었고, 더불어 각 방위를 대표하는 동물을 말하였는데, 인충(鱗蟲) 360종의 수장은 교룡(蛟龍)이고, 우충(羽蟲) 360종의 수장(首長)은 봉황(鳳凰)이고, 나충(倮蟲) 360종의 수장은 성인(聖人)이며, 모충(毛蟲) 360종의 수장은 기린(麒麟)이고, 갑충(甲蟲) 360종의 수장은 신귀(神龜)라 하였다.33)

이처럼 오충설은 오방위 오계절의 동물상징론에서 출발하여 이후로는 동물 전체를 분류하는 이론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표 4)

출전문헌	동	남	중앙	서	북
『呂氏春秋・十二紀』	鱗蟲 (春)	羽蟲 (夏)	倮蟲 (季夏)	毛蟲 (秋)	介蟲 (冬)
白八个代・「一礼」	蒼龍	赤駵	黃駵	白駱	鐵驪
『禮記・月令』	鱗蟲	羽蟲	倮蟲	毛蟲	介蟲
『大戴禮記・易本命』	蛟龍	鳳凰	聖人	麒麟	神龜
· 八翔喧乱· 勿平叩』	鱗蟲之長	羽蟲之長	倮蟲之長	毛蟲之長	甲蟲之長
『淮南子・天文訓』	歲星 蒼龍	熒惑 朱鳥	鎭星 黃龍	太白 白虎	辰星 玄武
『史記・天官書』	東官 蒼龍	南官 朱鳥	中官 天極星	西官(白虎)	北官 玄武

〈표 4〉 진한시대 오충설 비교 (김일권, 2007)

오충설에서 제5의 계절이고 중앙방위에 응하는 동물을 나충(倮蟲)이라 말한 점이 주목되는데, 더욱이 그 대표자를 사람을 뜻하는 성인(聖人)을 내세운 점이 흥미롭다.34) 전한대 성편된『주례』는 바로 이 나충(倮蟲)의 다른 표기로 나충(廳蟲)

^{33) &}quot;故曰,有羽之蟲 三百六十 而鳳皇爲之長. 有毛之蟲 三百六十 而麒麟爲之長. 有甲之蟲 三百六十 而神龜爲之長. 有鱗之蟲 三百六十 而蛟龍爲之長. 倮之蟲 三百六十 而聖人爲之長. 此 乾坤之美類, 禽獸萬物之數也."(『大戴禮記・易本命』):高明 註釋, 1993年 修訂版,『大戴禮記今註今譯』,臺灣商務印書館, 523면.

³⁴⁾ 오충설 성립 이후 다시 각 대표 신수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진한대는 여러 이론 이 제기되었는데, 『여씨춘추』「12기」는 오방색을 부여한 창룡(蒼龍), 적류(赤駵, 붉은말), 황류(黃駵, 누런말), 백락(白駱, 흰말), 철려(鐵驪, 검은 가라말)로, 『대대례기』는 교룡, 봉황, 성인, 기린, 신귀로 내세웠으나, 후대 표준이 된 체제는 『회남자』(BC139) 「천문훈」이 제시한 동방춘 창룡(蒼龍), 남방하 주조(朱鳥), 중앙계하 황룡(黃龍), 서방추 백호(白虎), 북방동 현무(玄武)의 오신도(五神圖) 방식이다. : 김일권, 2007 『동양천문사상 하늘

을 사용하였다. 라(贏)는 벌거벗을 라(倮, 裸)의 의미로, 또는 털이 짧은 천모(淺毛) 동물을 일컫는 글자이다.³⁵⁾

그 『주례』「지관」에서 땅의 형태에 따라 태어나는 생물과 살아가는 사람이 다르다는 '오지물생(五地物生)'설을 수록하였는데, 여기서 ①산림(山林)은 털이 가는 모물(毛物)과 떡갈나무같은 작실(柞實) 식물, ②천택(川澤)은 비늘있는 린물(鱗物)과 연검(蓮芡)같은 포과(包裹) 식물, ③구릉(丘陵)은 깃있는 우물(羽物)과 오 얏같은 핵과(核果) 식물, ④분연(墳衍)은 껍질있는 개물(介物)과 가시있는 망자(芒刺) 식물, ⑤원습(原隰)은 털이 얕은 라물(贏物)과 갈대같은 총생(叢生) 식물 이 마땅하다고 하였다.36)

이때 모물(毛物)과 라물(贏物)이 둘다 털있는 동물을 뜻하나, 모충은 초호(貂狐, 담비·여우)처럼 털이 가는 세모(細毛)의 동물, 나충은 호표(虎豹)처럼 털이 짧은 천모(淺毛)의 동물로 구별하였다. 이런 분류법이 전개되면서 전자 모물은 초식동물 위주로, 후자 라물은 육식동물 중심으로 더욱 구별하였고, 짐승의 수(獸)는 둘을 포괄하되 주로는 후자를 지칭한다. 이상에서 언급된 충(蟲)은 벌레란 뜻이 아니라 동물을 일컫는 말이다.37)

의 역사』

^{35) 『}康熙字典』 贏: 露其形也,(前漢書・景十三王傳註) 赤體也.(楚辭・九章註);又獸之淺毛者也.(周禮・地官註: 贏物, 虎豹貔縮之屬, 淺毛者.) 참고로, 자형의 비슷한 나나니벌・달팽이 라(贏)는 虫 부수이다.(『강희자전』 羸: 蜯屬. 又魚名.『山海經』: 濛水多羸魚, 魚身而鳥翼, 音如鴛鴦, 見則大水.)

^{36) 『}周禮』 「地官·大司徒」: 以土會之法, 辨五地之物生,

一曰山林, 其動物宜毛物, 其植物宜早物, 其民毛而方,

二曰川澤, 其動物宜鱗物, 其植物宜膏物, 其民黑而津,

三曰丘陵, 其動物宜羽物, 其植物宜覈物, 其民專而長.

四曰墳衍, 其動物宜介物, 其植物宜莢物, 其民晳而瘠.

五曰原隰, 其動物宜贏物, 其植物宜叢物, 其民豐肉而庳,

원문과 번역은 『周禮注疏』(漢鄭玄注·唐賈公彥疏, 北京大整理本, 2000), 『周禮正義』(十三經清人注疏, 孫治讓, 1987), 『周禮今註今譯』(林尹 註譯, 臺灣商務印書館, 1979)을 참조하였다.

^{37) 『}주례』 『고공기·재인조』에는 생활상 필요나 용도에 따른 분류 방식도 수록하였으며, 아 래처럼 가축, 조수 등 큰 동물은 대수(大獸)로, 잡다한 작은 곤충들은 소충(小蟲)으로 불

바로 『물명고』가 이러한 중국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오던 오충 동물설을 따라 분류명으로 사용한 것임을 여실히 보게 된다.

『물명고』는 모충과 나충 둘다를 수족(獸族)으로 묶어 불렀고, 그렇지만 모충류에는 기린, 말, 나귀, 노새, 소, 양, 돗(돼지), 사슴, 고란이, 노루, 해치 등 모두 초식동물류를 수록하였다. 해치(獬豸)가 포함된 것은 신양(神羊)이란 별칭처럼 양의 몸체를 지녔다고 보았기 때문인데, 신화전승 중에 소나 양, 사슴의 몸에 외뿔(獨角)을 지닌 일각록(一角鹿) 이미지를 지녔고, 사람이 다툴 때 뿔로 가리켜 곡직(曲直)을 분별하는 이수(異獸)라 여겼다.38)

반면에 나충(贏蟲)은 구성이 좀 복잡한데, 사자, 갈범(虎), 표범, 삵(狸), 이리(狼), 승냥이(豺), 곰 등의 야수(野獸) 종류와 너구리(獾), 개(狗), 원숭이, 수달피, 토끼, 족제비, 쥐, 다람쥐, 박쥐, 두더지, 청설모, 고슴도치 등 야생 동물들이 함께 섞여 있다.

다음 수족(水族)은 '수중동물인 인충과 개충의 통칭'으로 정의하였고, 인충(鱗

러 대칭하는 측면이 엿보인다. 먼저 "천하에 큰 동물(大獸) 종류로, ①소·양 등의 기름 진 동물(脂者), ②돼지·곰 등의 살찐 동물(膏者), ③호범·표범 등의 짧은 털의 동물(贏者), ④새 등의 날개 동물(翎者), ⑤용·뱀 등의 비늘 동물(鱗者)의 다섯 종류가 있고, 종묘제례를 행할 때, 앞의 둘은 희생으로 쓰고, 뒤의 셋은 조각 장식품으로 쓴다."고 하였으나, 일반 동물 분류법은 아니다. 다음 벌레를 뜻하는 용법의 소충류(小蟲類)를 수록하여, 곤충류의 행태를 열거 분류한 방식도 있다: "①겉에 껍데기가 있는 것(外骨), ②속에 껍데기 있는 것(內骨), ③거꾸로 갈 수 있는 것(卻行), ④옆으로 가는 것(仄行), ⑤잇달아 가는 것(連行), ⑥굽어 가는 것(紅行), 그리고 ⑦목으로 우는 것, ⑧업으로 우는 것, ⑨옆구리로 우는 것, ⑩날개로 우는 것, ⑪넓적다리로 우는 것, ⑫가슴으로 우는 것, 이런 종류를 작은 벌레류(小蟲類)라 하며, 제기(祭器)의 조각 그림으로 쓴다."고 하였다. 『周禮』「冬官・考工記」〈梓人〉:「天下之大獸五、脂者・膏者・贏者・羽者・鱗者、宗廟之事, 脂者・膏者以爲牲、贏者・羽者・鱗者、以爲筍處、外骨・內骨, 卻行・仄行・連行・紆行, 以 脰鳴者, 以注鳴者, 以旁鳴者, 以溪鳴者, 以股鳴者, 以胸鳴者, 謂之小蟲之屬, 以爲雕琢」

³⁸⁾ 다른 표기로 음이 같은 '解應(해치)'가 쓰였다. 『漢書』 「司馬相如傳」의 "弄解應"에 대한 당나라 顏師古注에서 "張揖曰, 解應似鹿而一角, 人君刑罰得中則生於朝廷, 主觸不直者, 可得而弄也."라 하였다. 곧 해치(解應)와 해치(獬豸)가 동일하게 형벌 곡직을 주관하는 법수(法獸)로 간주하였으며, 일각록(一角鹿)으로 보는 경우는 기린(麒麟)과 유사한 모습을지니게 된다.

蟲)은 '비늘과 지느러미, 꼬리가 있는 것'과 '비늘 없는 것도 덧붙인다'고 하여 유린(有鱗)과 무린(無鱗)을 포괄하였다. 개충(介蟲)은 외형에 껍데기를 지닌 조개류와 갑각류를 포괄한 패갑류를 분류한 이름이다.

한편 유희의 『유록(類錄)』「화리류(化理類)」에는 소분류 범주 설정에 관한 자신의 설명을 담고 있어 참조된다.39)

하나는 전통적인 오충설을 '다섯 종류의 대수(大獸)' 분류법으로 수록한 것이다: "천하의 큰 동물(大獸)에 인충·개충·우충·모충·나충(鱗·介·羽·毛·贏)의다섯 종류가 있다. ①인충이 먼저 생겨났고, 그래서 몸체가 쇠퇴하고 발이 없어 물을 기다린 뒤에야 움직인다. ②개충이 그 다음 생겨났고, 그래서 겨우 껍데기로 감싼다. ③우충이 그 다음 생겨났고, 그래서 여덟 개 구멍과 두 다리가 있으나, 여전히 난생을 면하지 못했다. ④모충이 그 다음 생겨났고, 그래서 아홉개 구멍에 태생이나, 여전히 발굽(歸足)을 면하지 못했다. ⑤나충이 다음에 생겨났고, 그래서 다섯 손가락을 갖추어 능히 일을 해낼 수가 있었다. 이 나충의 종류에 오직 사람만이 최후로 태어났고, 그래서 머리에 하늘을 이고 직립하게 되었다."고 하였다.(화리류-가 자료)

이를 적극 해석하면, 물속의 어류가 먼저 생겨났고,(鱗蟲) 다음 패갑류가 생겨 났으며,(介蟲) 그 다음 이족(二足)에 난생(卵生)하는 조류(鳥類)가 생겨났고,(羽 蟲) 다음 몸에 아홉 구멍을 갖춘 태생(胎生)의 동물(포유류)이 생겨났고,(毛蟲)

^{39) 『}文通』 そ 『類錄』 『化理類』:

⁽升)「天下之大獸、有五、鱗者・介者・羽者・毛者・贏者、①鱗、先生、故殺身無足、待水而行、②介、次之、故僅以甲庇、③羽、次之、故八竅兩足、猶未免卵生、④毛、次之、故九竅胎生、猶未免歸足、⑤贏、次之、故五爪具而能事畢矣、贏之類、惟人、最後生、故頂天而立。」

⁽斗)「天下之小蟲, 有四, 不變者, 一變者, 二變者, 三變者, ①濕生而不變, 蚓蝸是也, ②卵生而一變, 螽蝗是也, ③卵成多, 豸成蟲, 蜻蜓, 蜩蟬是也, ④卵成多, 豸成蛹, 蛹成蟲, 蛾蝶是也, 」

⁽中)「草木,亦有胎生·卵生之別.以根曰胎,以核曰卵.或問: '草旋壯旋衰, 木累歲壯衰.' 曰: '草木同爲少陽, 而草得其陰一邊,故易壯也. 木得其陽一邊,故遲壯也. 易壯者速衰,遲壯 者久持. 物理皆然, 寧不鑒裁.'」

여기 「화리류」 대목은 오보라, 2019 「서파 유희 『물명고』의 체계 및 의의 재탐색」(『대동한문학』 제58집, 245-287면)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털없는 동물인 사람이 생겨나 직립보행하며 문명의 일을 해내는 영장이 되었다(贏蟲)는 인식인데, 말하자면, 유희가 오충의 대수(大獸) 분류를 인충〉개충〉우충〉모충〉나충의 순서로 저등에서 고등으로 등급화시킨 일종의 유사진화론적관점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 흥미롭다. 짧은 글이라 개념이 모호한 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이런 측면이 『물명고』의 분류 서술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추후 고찰해볼 일이다.

다음은 곤충류로 여겨지는 네 종류의 소충(小蟲)류 분류법에 대한 것이다: "천하에 작은 벌레 무리에는 변태 않는 것, 한 번 변태하는 것, 두 번 변태하는 것, 세 번 변태하는 것의 네 종류가 있다. 습생(濕生)하여 변태하지 않는 벌레류가 지렁이, 달팽이 등이고, 알을 낳고 한 번 변태하는 것은 메뚜기, 누리 등이고,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고 애벌레가 성충이 되는 것은 잠자리, 매미 등이고,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고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태하는 것은 누에, 나비 등이다."라고 하였다.(화리류-나 자료)

이는 소충류의 분류 기준을 곤충의 변태 여부에 따른 것이어서 상당히 주목되며, 애벌레(豸)에서 성충으로 변태하는 과정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어떤 과정을 통해 수록된 것인지, 또『물명고』본문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주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유희의 「화리류」는 동물류인 〈유정류〉의 소분류를 오충과 곤충의 6종으로 분류 설정한 나름의 근거를 제시한 이른바 분류법 관련 서술이어서 크게 참조된다.

그밖에 「화리류」에는 식물도 동물의 난생·태생에 비유하여, 뿌리로 나는 것은 태생이고, 씨로 나는 것은 난생이라는 발상도 있으며, 또 초와 목은 소양(少陽)에 속하되, 초는 음의 성질이어서 쉽게 자랐다 빨리 쇠하고, 목은 양의 성질이어서 늦게 자랐다 느리게 쇠하는데, 이는 자연의 물리(物理)가 그런 것이라 하였다.(화리류-다 자료)

4) 남송 『통지』의 시명다식 사상과 곤충의 해석 문제

여러 용어 중 현대어법의 곤충이 있어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곤충(昆蟲)의 곤(昆)은 형(兄) 혹은 후사를 뜻하는 말이나, 무리(群, 衆)란 뜻으로 쓰여서는 작은 벌레(小蟲)를 지칭하고, 그러나 때로 뭇 동물을 포괄하여 일컫기도 한다. 『한서』의 「성제기(成帝紀)」에서 "군주의 도를 얻으면 초목곤충이 함께 자기 자리를 갖데된다."(君道得, 則草木昆蟲咸得其所.) 기록에 대해, 당나라 주석가 안사고(顏師古)는 "곤충은 뭇 동물(衆蟲)을 말한다"고 주석하였다.40)

전한말의 한성제 시기에 나오던 곤충 용어가 동물 분류명으로 본격 쓰인 것은 남송(1127-1279) 초 정초(鄭樵, 1104-1162)의 『통지(通志)』(20略 200권, 1162)에서 잘 보인다. 『통지』는 중국 고대 문물전장제도사를 다룬 삼통(三通. 通典, 通志, 文獻通考의 합칭)의 하나로서 널리 읽힌 책이며, 그 20략의 마지막을 「곤충초목략(昆蟲草木略)」이라 제명하고서 초목류는 '초류(草類), 채류(菜類), 도량류(稻粱類), 목류(木類), 과류(果類)'의 5류로, 동물류는 '충어류(蟲魚類), 금류(禽類), 수류(獸類)'의 3류로 분류 설명하였다.41)

그 「곤충초목략」 〈서언〉에서 이를 편성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여 흥미롭다.

그의 문제의식은 당시 유학자들이 궁리진성(窮理盡性)을 말하면서도 '허학(虛學)을 으뜸으로 삼고 실학(實學)에 이르지 못함'을 비판하면서, 논의의 출발점을 공자가 이미 '소자(小子)가 『시경』을 배우면 조수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된다'고 말한 '시명다식(詩名多識)의 물명(物名)' 중요성에서 찾았으며, 그 시명다식하는 이유로 '시경(詩經)은 악(樂)의 근본이 되고, 악은 성(聲)에 기초하고, 성의 근본은 발흥함에 있고, 조수초목이야말로 발흥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라 말하였다.

^{40) 『}漢書』 「成帝紀」 "君道得, 則草木昆蟲咸得其所." (唐顏師古注: 昆, 衆也. 昆蟲, 言衆蟲也.) ; 『大戴禮記』: 昆小虫、抵蚳. 昆, 衆也. : 『 설문해 ステ』 昆, 小蟲. (『夏小正』. 傳曰, 昆者, 衆也.)

⁴¹⁾ 문물전장제도사를 다른 거질의 문헌을 류서류(類書類) 문헌이라 칭하고, 북위의 『황람(皇覽)』을 효시로 말하나 전하지 않으며, 당나라에 들어서 『북당서초(北堂書鈔)』, 『예문류취(藝文類聚)』, 『초학기(初學記)』 등 류서가 크게 발달하는데, 그중 『초학기』에서 동식물을 과목부(果木部), 수부(獸部), 조부(鳥部), 린개부(鱗介部), 충부(蟲部)의 5부(권28-권30)로 편성하였으나 아직 곤충이란 용어를 쓰지는 않고 있다.

그러면서 예시로 '소나 양은 뿔이 있고 이빨이 없어 그 소리가 유유(呦呦, 사슴이 내는 슬픈 울음소리 모양)하고, 낙타나 말은 뿔이 없고 이빨이 있어 그 우는 소리가 소소(蕭蕭, 바람이 휘힉 부는 소리 모양)한데, 그런 조수(鳥獸)의 정상(情狀)을 알지 못하면 『시경』의 관관(關關). 유유(呦呦)의 발흥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42)

둘째는 그러한 발흥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는 본초서와 물명서를 통해 물명다식할 것을 강조하였다. 남조 양나라시기 은자인 도홍경(陶弘景, 456-536)이 주석을 달아 전한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이 360종을 수록하여 주천(周天)의 도수에 응하였는데,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한 정초 자신이 그 도홍경의 마음을 사모하여산야와 낮밤으로 도처를 직접 찾아다녔고, 또한 도은거(陶隱居, 도홍경의 별칭)의책을 통해 그 동식(動植)의 성정을 궁구하여 조수초목의 진정(眞情)을 얻고자 하였고, 그『시경』의 발흥을 얻은 연후에는 다시 최초의 문물 사전격으로서 명물의조종인『이아(爾雅)』(13경의 하나로 전국시대에서 전한시대 무렵 성편)를 풀이하였으며, 그런 끝에 지금「곤충초목략」을 짓는다고 하였다.43)

이처럼 정초는 허학이 아닌 실학으로서 공자의 시명다식을 통한 물명(物名)의학문 중요성을 피력하였고, 이를 위해 본초서와 물명서를 통한 물명 궁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물로서 「곤충초목략」을 편찬하였던 것이다. 유희의 『물명고』역시 이러한 실학으로서의 물명 궁구를 견지하였던 것이라 짐작된다.

^{43) 『}通志』「昆蟲草木略」〈序〉:「惟『爾雅』一種爲名物之宗, ··· 惟本草一家, 人命所系, 凡學之者務在識真, ··· 『神農本草』有三百六十, 以應周天之數, 陶弘景, 隱者也, 得此一家之學, 故益以三百六十, 以應周天之數而兩之. 臣少時好讀書, 無涉世意, 又好泉石, 有慕弘景心, 結茅夾漈山中, 與田夫野老往來, 與夜鶴曉猿雜處, 不問飛潛動植, 皆欲究其情性. 然後傳『時』, 已得時人之興, 然後釋『爾雅』. 今作「昆蟲草木略」, 爲之會同, 庶幾衰晚少備遺忘, 豈敢論實學也」(1981-1982년)

시대가 남송과 조선후기로 크게 떨어져 있지만 유희의 『물명고』편장은 정초의 『통지』「곤충초목략」에서 제시하였던 '충어류(蟲魚類), 금류(禽類), 수류(獸類)'의 범주와 동궤를 이룬다 하겠으며, 그러나 『물명고』가 수록한 곤충류 범주는 작은 벌레로서의 소충(小蟲) 중심이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발이 있는 유족(有足)의 충류(蟲類)와 거머리처럼 발이 없는 무족(無足)의 치류(豸類)를 포괄한 내용이다. 항목을 들여다보면, 소충류가 누에(蠶)에서 두텁이(蟾蜍)까지 대다수인 39항이고, 그 뒤로 열거된 거머리(水蛭) 이후 6항은 무족 치류에 해당할 듯하나, 본문 분석을 거쳐야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 확정 문제는 후일로 미룬다.

5) 무정류(식물계)의 소분류 문제

다음 『물명고』의 식물류 소분류는 초부와 목부의 두 부문으로 나눠져 있다.

《초부(草部)》는 총 279항이라는 매우 방대한 수량이고, 추후 내용분석의 진전에 따라 더 세분된 하위 분류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 순서의 착종과 혼선이 심하게 보여 곡류(米穀), 채류(菜類), 산초(山草)류 등등의 세부 분류로 일률화하기가 어렵다. 다만, 대략 구성을 보면, 맨먼저 벼, 메기장, 수수, 차조, 피, 밀, 율무등의 미곡류를 실었고, 그 다음에 왕골, 억새, 조릿대, 갈대, 대나무 등의 죽류(竹類)를 싣고, 그 다음 감자, 양하, 생강 등이, 그 다음 맥문동(겨으살이), 부채(부추), 염교, 파, 마늘 등이 보이고, 중간에 땅외, 참외, 물외, 수세외, 수박 등 나실류(蓏實類, 땅에 열리는 草實)44) 등이 보이고, 말미에 수조(水藻)나 해조(海藻)류가보인다. 〈목부〉는 소나무, 잣나무, 가래나무, 오동나무 등 〈목부(木部)〉에는 79항을 열거하고 있다.

⁴⁴⁾ 나실(蓏實)은 나무의 원형 과실(果實)에 대비하여, 타원형의 열매를 맺는 초실(草實)을 일컫는 전통시대 식물분류 용어이며, 주로 오이 가지 참외 호박 등 채류로 포괄되는 때문에 나채류(蓏菜類)로도 분류된다. 이 용어의 개발은 다음에서 이루어졌다. : 김일권, 2014「나채류의 분류 문제와 김치류 음식의 발달」, 『김치의 인문학적 이해』, 김치학총서 02, 세계김치연구소; 김일권, 2015「과실과 나실, 과채류와 나채류의 생태자연학 보고서:실학적 관심, 실용생활적인 전통식물분류법」, 『네이버캐스트』〈실학, 조선의 르네상스를 열다〉.

토석금과 수화의 광물류에 대한 것은 앞서 살펴본 것으로 대체한다.

6) 『물명고』의 대중소 분류 종합

지금까지 고찰한 대중소의 범주명과 그에 따른 분류 체계를 계열화하면, 아래 도 표와 같이 대분류 4류(類), 중분류 7족(族), 소분류 13부(部)로 재구성이 가능하다. 각 분류의 수록 표제항 수량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이 총 685항에 이른다.(표 5)⁴⁵⁾

- A. 유정류(有情類): 1.우충(羽蟲) 87항, 2.모충(毛蟲) 14항, 3.나충(贏蟲) 28항, 4.인 충(鱗蟲) 46항, 5.개충(介蟲) 26항, 6.곤충(昆蟲) 45항
- B. 무정류(無情類): 7.초부(草部) 279항, 8.목부(木部) 79항
- C. 부동류(不動類): 9.토부(土部) 10항, 10.석부(石部) 34항, 11.금부(金部) 5항
- D. 부정류(不靜類): 12.화부(火部) 13항, 13.수부(水部) 19항

각 분류에 속하는 표제항 내역은 부록으로 첨부한다.(표 5) 주요 분석 판본으로 ①문아사 영인(1974)의 조선학회본(5권 1책)⁴⁶⁾은 체제가 정연하여 구성을 알아보기가 쉽고, ②이를 전체가 필사 수록된 한중연 장서각 기탁33번본(J古기탁2001-33. 제명: 文通 物名考, 乾坤 2책본)과 대조하여 항목의 구분과 글자 출입 상황을 살폈고, ③비록 수족(水族, 鱗蟲·介蟲)이 누락되어 있으나 정서된 필사 상태가 좋아글자 판독이 용이한 장서각 기탁10번본(J古기탁2001-10. 제명: 文通 物名考, 2책본)까지 3종을 활용하였다. 한글물명은 표제항에 붙은 것은 표기하였고, 하위 부속항의 문제는 아직 다 수록하지 못하였다.

전체의 대중소 분류 얼개는 앞서 〈표 1〉로 제시하였다. 제1과 제2 대분류는 동물과 식물류에 대한 것이어서 생물계라 이를 수가 있고, 반면에 그에 대응하여 편

⁴⁵⁾ 본고에서 말하는 항은 『물명고』의 각 항목 맨앞에 제시한 표제항의 수량을 말하며, 해당 분류의 동식물 종수가 아니다. 『물명고』에 수록된 전체 동식물의 종수를 확인하기 위해 서는 본문 분석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매우 지난한 작업이다.

⁴⁶⁾ 일본 아유가이(鮎貝房之進) 소장 조선학회본의 국내 문아사(文雅社) 영인본(김근수 해제, 1974『物名考·物譜』, 국립중앙도서관 713-7-14)을 활용하였다.

의상 임의로 무생물계라 하였지만, 제3 부동류와 제4 부정류는 광물류로 크게 통합될 수가 있다. 무엇보다 매우 이질적인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합치고 네 범주로 구분하여 수록한 맥락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전반적으로 생물학적이고 광물학적이나 박물학적인 서술 방식은 제한적이라 보여, 이들 전체를 포괄하는 키워드를 하나로 꼽는다면, 물명이 붙은 생활 속 자연물을 수록 대상으로 삼은 까닭에 『물명고』는 '생활자연물의 물명세계'를 담아낸 주목할 저작물이라 평가된다.

〈표 5〉 『물명고』(5권 1책본)의 분류 편제 (김일권, 2020.4)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	표제항		권차
	鳥族	1. 羽蟲(우충):「飛鳥. 禽・鳥・飛肉」 조류	87항		
A. 有情類	'獸族'(毛蟲·贏蟲)	2. 毛蟲(모충) :「有蹄之獸[類]」 초식동물	14항		궈1
	:「走獸也. 毛蟲・羸蟲之通稱.」	3. 贏蟲(나충) :「有爪之獸, 贏者淺毛也.」 육식동 물		246항 (36%)	
	'水族'(鱗蟲·介蟲) :「水中之物,	4. 鱗蟲(인충) :「凡水族之有鱗鬐尾者. 其無鱗者亦 類附焉.」 어류			권2
	鱗屬介屬之通稱.」	5. 介蟲(개충):「水族有甲者」 패류· 갑각류 2			
	蟲族 『有足蟲・無足豸』	6. 昆蟲(곤충) :「一年小蟲, 有足曰蟲, 無足曰多.」 충치류	45항		
B.	草木部	7. 草部 :草[百卉搃名晉]·卉[草木搃名]·毛[地 以草爲毛]	279항	358항 (52%)	권3
無情類		8. 木部:「나무 生立曰樹, 取材曰木.」	79항	79항 (52%)	
		9. 土部:「地之無石處壽」			
C. 不動類	土石金部	10. 石部:「地之凝堅者固돌」	34항 49항 (7%)		
		11. 金部: 生于土可以從革者摠稱爲金		(1,1,1,	권5
D. 不靜類	水火部	12. 火部:「所以爇物量」		32항	
	小八司	13. 水部:「天地之津液流下者号」	19항 (5%)		
4類	7族	13部	685항		계

4. 결론

지금까지 조선말기 19세기 초 저작된 방편자(方便子) 유희(柳僖)의 『물명고(物名考)』(5권 1책, 1824)가 지닌 물명 분류체계를 대중소의 3단계 관점으로 구조화하고, 각 분류 단계의 특성과 분류명 개요를 고찰하였다.

『물명고』는 주변 생활상 자연물 전체에 대한 물명 분류학을 추구하고 있어 '물명 자연물 세계'에 대한 탐구서로 간주되었는데, 그 대분류명으로 제시된 제1 유정류(有情類)와 제2 무정류(無情類)는 정도전의 『불씨잡변설』(1478) 논설을 통해불교에서 지각(知覺) 작용 개념으로 사용한 정식(情識)의 유무 논의에 기초하여생물계의 동식물을 분류한 관점임을 고찰하였고, 아울러 성리학의 논변에서도 이를 수용하되 북송대 주렴계 『태극도설(太極圖說)』의 동정론(動靜論)으로 대입하여 전자는 동이무정자(動而無靜者)로, 후자는 정이무동자(靜而無動者)로도 해석되는 면모임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다 장횡거 『서명(西銘)』의 약동(若動)·약식(若植) 논의가 결합되면서 주자 및 조선 유학자들의 문집류 등에서 동·식물을 유정(有情)·무정(無情)이자 약동(若動)·약식(若植)으로 동어반복적으로 병렬하는 관용법이 쓰여왔고 이 영향도 있을 것이라 고찰하였다.

또한 이와 다른 방향에서 만물의 존재 특성을 능동(能動)하는 유동물인가 불능동(不能動)하는 고정물인가로 보는 동정(動靜) 여부의 분류 관점이 전개되었고, 이는 『태극도설』의 오행만물생성설과 음양동정설(陰陽動靜說)에 기초하여 생성된수화목금토의 오행 질료물을 제3 부동류(不動類)와 제4 부정류(不靜類)로 가르는 관점이 되었다. 이로써 물과 불은 유동성의 부정물(不靜物)로, 목금토는 고정성의부동물(不動物)로 양분되었다. 여기에다 본초학적 광물 분류법이 다시 결합하여, 전자의 수화는 백성을 기르는 유동의 질료물이고, 후자에서 목(木)은 수목(樹木)으로서 이미 초목 생물류에 속하므로 제외되고, 대신에 『본초강목』의 본초서가 인식한 토석론(土石論) 측면에서 만물의 모태라 간주된 토에 쇠와 돌의 금석(金石)을 결합시킨 토석금(土石金)의 광물류 범주론으로 수립되었다.

이렇게 『물명고』의 대분류명에는 (1)불교의 유정무정 지각론과 성리학적 오행

통색론, (2)『태극도설』의 태극동정론과 능동능정론, (3)『서명』의 민포물여관과 약동약식론 및 (4)본초서의 오행적 광물분류론 등이 복잡하게 얽혀든 동물·식물·광물의 생활자연물에 대한 분류 범주론임을 추론할 수가 있었다. 그간 이 대분류명의 성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 본고를 통해 조금의 진전을 볼 수가 있어 일정한 학술적 의의를 지닐 것이라 전망한다. 앞으로 더욱 면밀한 분석을 통해 더적합한 해석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소분류명의 13부 체제에서 동물류로 포괄된 우충, 모충, 나충, 인충, 개충은 중국 고대 진한시대 성립 전개된 오행사상적 동물분류설인 오충설(五蟲說)이 그대로 전승된 방식임을 살펴보았고, 그런데 털이 가는 세모(細毛)의 모충(毛蟲)과 털이 얕은 천모(淺毛)의 나충(贏蟲)이 현대 생물분류법상 둘다 포유류에 속하는 중복성이 있으나, 『물명고』는 전자의 모충은 소, 말, 사슴 등 주로 초식동물류를, 후자의 나충은 갈범과 사자 등 육식의 맹수류와 너구리, 족제비 등 야생 동물류를 포괄하는 분류명으로 사용하였다. 나머지 우충(羽蟲)은 조류, 인충(鱗蟲)은 유린 (有鱗)과 무린(無鱗)의 어류, 개충(介蟲)은 패류와 갑각류의 수중 동물을 분류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물명고』의 오충 소분류가 각각 조류, 초식동물, 육식동물, 어류. 패갑류를 포괄하는 분류틀이라 조망되었다.

이상 오충설에서 충(蟲)은 벌레가 아니라 동물이란 뜻을 지녔고, 그런 연장선에서 한편으로 무리(群衆)를 뜻하는 곤(昆)을 써서 모든 동물 전체를 곤충(昆蟲)이라 포괄하는 용법이 한당송대에서 전승되었고, 이 문제를 남송초 최대의 류서류인 정초(鄭樵)의 『통지(通志)』(1162)가 「곤충초목략(昆蟲草木略)」의 편장을 통해 동물류를 '충어류(蟲魚類), 금류(禽類), 수류(獸類)'로 분류 수록하는 면모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정초의 문제의식이 공자가 말한 시명다식(詩名多識)의 물명(物名) 중요성에서 출발하여 조수초목의 본초학적 물명을 궁구하는 일이 허학(虛學)이 아닌 실학(實學)의 기초임을 역설하는 흥미로운 대목을 보게 되었고, 이는 유희가 『물명고』를 지은 문제의식과 다를 바 없는 지점이라 여겨졌다.

그러나 송대 이후로는 곤(昆)이 지닌 또다른 용법인 소충(小蟲)이란 뜻으로 주로 사용되어, 『물명고』가 편제한 곤충류(昆蟲類) 범주는 유족(有足)의 소충류(小

蟲類)와 무족(無足)의 치류(豸類)를 포괄한 충치류(蟲豸類) 구성이었다. 이것은 고대 오충설에서 작은 벌레의 곤충류 분류가 누락되어 있는 문제로 인하여, 동물 계를 일괄하는 용법으로 흔히 '조수충어(鳥獸蟲魚)'가 쓰이는 용법과 무관하지가 않은데, 곧 조류와 수류 외에 작은 충치류와 물속 어별(魚鼈)류를 충어로 합칭하는 관용어 용법이 오충설과는 별개의 맥락으로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물명고』는 이런 양자의 흐름을 절충하여 동물계를 오충설 중심으로 분류하되 곤충류를 덧붙여 결합한 방식을 편제하였다.

이상의 대소 분류에다 『물명고』는 물속의 인충(鱗蟲, 어별류)과 개충(介蟲, 패 갑류)을 수족(水族)으로, 모충(毛蟲)과 나충(羸蟲)을 수족(獸族)으로 묶는 중분류 관점도 전개시켰다. 다만, 원문에는 이 둘 뿐이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 관점을 견강하여 늘리면 동물계는 조족(鳥族), 수족(獸族), 수족(水族), 충족(蟲族)으로, 식물계는 초목부, 광물계는 토석금부와 수화부로 칭할 수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물명고』의 분류는 대중소의 3단계 체계를 지향한 것이라 정리되며, 최종으로는 '대분류 4류(類)-중분류 7족(族)-소분류 13부(部)'로 요약되었다.

이렇게 필자가 정리한 3단계 분류틀에 따라 소분류 13부에 편제된 표제항을 말미의 〈물명고의 상세 분류 내역표〉(표 6)로 추출하여 작성하였다. 그 결과 제1 유정류(동물류) 246항(36%)), 제2 무정류(식물류) 358항(52%), 제3 부동류(광물류) 49항(7%), 제4 부정류(수화류) 32항(5%)으로 총 685항이 정리되었다.47) 절반이식물류이고, 동식물류를 합하면 604항(88%)으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수화·토석금의 광물류는 81항(12%)에 불과한 분포로 집계되었다.

이렇게 물명의 비중에서 동식물이 절대 다수인 방식임을 보게 되므로 이를 다룬 본초서 계통과의 연계 연구가 더욱 요청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물명고』(5권 1책, 1824)는 선행 물명서인 이만영의 『재물보(才物譜)』(8권 8책, 1798)를 저본으로 삼아 그중 동·식·광물의 항목을 취사선택하여 편성한 것

⁴⁷⁾ 윤향림, 2018 「물명어휘집의 계통과 어휘 연구」에서 국중본 『물명고』(5권 2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701개 표제어에 한글 어휘 1,536항목이라 하였는데, 본고의 것과 표제항 수량에 차이가 난다. 향후 심화연구로 표준화된 수치로 수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라 알려졌고, 따라서 『물명고』의 세부 항목 구성의 면모와 분류 특성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정밀 대조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향후 이러한 진전된 연구를 통해 조선말기 전개된 물명서의 역사적 의의를 드러내고, 전근대 생물·무생물분류법 뿐만 아니라, 한글물명의 비교 문제로까지 심화하여 국어학사적 의의도 크게 구축할 필요성이 크다. 분류학은 자연과 인간의 질서를 이해하고 사물의 인지체계를 연구하는 중요한 지적 작업인바, 그 흐름에 『물명고』의 자료적 가치가 놓여 있다.

〈표 6〉 유희 『물명고』(5권 1책, 1824)의 상세 분류 내역표 (김일권, 2020.4)

대 범 주	소범주 部目	표제항 목록	표제 항수	권 차
A. 有精類	1. 羽蟲(우충) : 飛鳥, 禽・鳥・飛肉」 - 名・森	yb01鳳凰(봉황)・金爵(금작)、yb02隱驚(악작)[紫鳳]・鸞(난)[鳳皇之佐]、yb03雉(치)[엥]・鶴(교)[山雉]・誘子(유자)[밋엥]、yb04白 [關(백한)、yb05闊雞(ご利)[似雉]・鴉雀(반작)[胡中鳥]、yb06雞(계)[닭]、yb07殺雞(토수계)、yb08鶏鵝(돌立)、yb09鷓鴣(자고)、yb10竹雞(죽계)、yb11秧雞(앙계)[天다리]、yb12鴞雞(등계)[등북이]、yb13鶉(메추라기)[괴출이]、yb14킪(세가라메추라기)、yb15鵝(화)[두루미]、yb16鸛(황새)[한새]、yb17鶕鴰(창괄)[왜같이]、yb18鷺鷥(해오라기)[해오리]、yb19白鶴子(백학자)・朱鷺(주로)[다옥이]・紅鶴(홍학)、yb20鵠(곡)[곤이]、yb21鵡鸛(숙상)・商羊(상양)、yb22雁(안)[기러기]・鴻(홍)[大者]、yb23鴨(압)[집오리]、yb24鳧(부)[물오리]、yb25鸂鱉(계칙)[비오리]、yb26鷿鵜(벽제)[되강오리]、yb27鵜鵝(제立)[사下새]、yb28鴳 [교청)、yb29鸀鶏(촉옥)・鸑鱉(악작)、yb30鴇(너세)[너시]、yb31鵞(거위)[게우]、yb32秃鶖(독추)、yb33雖鳩(저구)[증경이]、yb34鸕鷀(가마우지)가마오디]、yb35鷓(갈매기)[갈머기]、yb36鷁(의)、yb37信天緣(신천연)、yb38鷸(音)[도요새]・翡翠(비취)、yb39魚狗(어구)[쇠새]、yb40鶺鴒(칙령)[할미새]、yb41造化鳥(조화조)[종달이]、yb42鴒(합)[집비들기]、yb43鳩(ア)[흰비들기]、yb44艿鳩(뻬꾸기)[백국이]・鶺鳩(골구)[발의]、yb45戴勝(대승)[되박박고]、yb46伯勞(백로)、yb47鳸(호)・竊脂(절지)[고디새]、yb48蚊母鳥(문모조)、yb49鸚鴿(앵목)、yb53秦吉了(진 길료)、yb54杜鵑(두견)、yb55練鵲(때까치)[작라리]、yb56山鵲(산작)、yb57啄木(딱따구리)[뜻져구리]、yb58慈鳥(까마귀)[가마괴]、yb59鴉鳥(아오)[갈가마괴]、yb60鵲(까치)[가티]、yb59鴉鳥(아오)[갈가마괴]、yb60搗(까치)[가티]、yb59鴉鳥(아오)[갈가마괴]、yb60搗(까치)[소로기]・葶(연)・痴鳥	87항	권1

	[부형이]·休留[휴드새], yb65角鴟(각치)[슈알티새], yb66鵬(수리)[수리], yb67鶴(요)[결의], yb68松體(송골)·海東靑(해동청)· 鴉鵑[나친이], yb69燕鶻(연골)[칼새]·劒翔鳥(검시조), yb70隼(준)[조롱틴], yb71鸇(전)[구딘이]·蛟母鳥[구딘이·바롬갑이], yb72鴞(올빼미)[옷밤이], yb73燕(제비)·越燕[졉이], yb74胡燕(명마기)[멱막이], yb75雀(작)[참새], yb76巧婦鳥(뱁새)[밤새]·萬雀[쵹새], yb77茶鳥(다조)[콩새], yb78鶡鴠(할단), yb79元央(원앙)[東醫증경이], yb80鵴觴(점점)[比翼鳥], yb81同穴鳥(동혈조), yb82鸕腐(당도), yb83鴆(점새), yb84鸛鵯(관단), yb85鷄鵑(원게), yb86周周(주주), yb87精衛(정위)		
※獣族(毛蟲・ 贏蟲):「走獸也.毛蟲・贏蟲之通 稱.」2. 毛蟲(兄舎):「有蹄之獸[類]」 초식동물	1麒麟(기린), 2馬[물], 3驢[나귀], 4騾[노시], 5駝(낙타)[약대], 6 牛[쇼], 7犀(코뿔소), 8羊[양], 9豕[돗], 10鹿[사슴], 11糜[고란이], 12麞[대노로]・兜[보노로], 13麝(사항노루), 14獬豸(해치) *장서각본(J古기탁2001-33)은 麂[보노로]가 별개 표제항임.	14항	
3. 贏蟲(나충) :'有爪之獸, 贏者淺毛也. 육식동물	1翳虞(추우), 2獅(사자), 3虎[갈범], 4豹[표범], 5貙(추안), 6狸[숙], 7猫[고양이], 8狐[여우], 9狢(학, 臊鼠담뷔), 10淵[오쇼리], 11獾[너구리], 12豺[승냥이], 13狼[일희], 14狗[개], 15象[코키리], 16熊[곰], 17獼猴[전남], 18猿(원숭이), 19水獺[슈달피], 20膃肭獸(올눌수), 21兎[톳기], 22鼠[쥐], 23鼬鼠[죡졉이]・鮭鼠(생서)*, 24山鼠[다람이], 25蝙蝠[붉쥐], 26飋鼠(두더지)[뒤뎍이]・靑鼠[청설모]*・貂鼠[돈피], 27火鼠(화서), 28蝟鼠[고솜돗]*장서각본은 靑鼠(청설모) 이하가 별개 표제항임. *) ** ** ** ** ** ** ** ** ** ** ** ** *	28항	
※水族 (鱗蟲・介蟲): 「水中之物、 鱗屬介屬之通稱」 수중동号 4. 鱗蟲(인충):「凡水族之有鱗 響尾者. 其無鱗者亦類附 焉.」 어류	1龍[룡]・虯(규룡)・應龍(응룡), 2蛟(교룡)・蜃樓(신기루), 3鮫人(인어)・江黄[시옭디]*, 4石龍[도롱룡]・蝘蜓[도마바얌]・蛤蚧(함개), 5鱧(철갑상어), 6鮪(다랑어), 7鮫魚[상어], 8鯉(잉어)[니어]・鰺[발강이]・石鮅[불거디], 9鱅(용어)・重唇魚[눕타], 10鱮(연어)・鰱[년어], 11靑魚(청어), 12鯔(중어)[슈어], 13白魚[우락이]・膾殘魚([빙어], 14鰊(감어), 15魦(조기), 16石首魚[죠긔]・鯢魚[민어], 17鰤[쥰티], 18鱭[위어], 19鯿[병어], 20鰅(동자개), 21嘉魚(가어), 22鯽魚(붕어)[부어], 23鱸(농어)[걱정어・노어], 24鱖[소가리], 25杜父魚[꺽디], 26鯊魚[모릭무디], 27鰷(피리)[필이]・黑鮫[돗고기], 28黃鯝[은구어], 29石斑[여흘티]・密魚[밀어], 30鱧[가물티], 31鰻鱺[비암쟝어], 32鮎(메기)[메유기], 33黃顏魚(황상어), 34河鈍(복어)[복], 35海鈍(돌고래), 36比目[가잠이]・廣魚[념티]・舌魚[셔대], 37烏賊魚[오증어]・柔魚[골독이]・八梢魚[문어]・小八梢[낙디], 38부〈魚+芙〉[무림]・湘洋魚[가오리], 39大口魚[대구]・北魚(북어), 40拔魚[방어]・松魚[죵어]・古道魚[고등어]・裙帶魚[갈티]・蘇魚[방당이], 41無祖魚(망등이)・昻刺[자가샤리],	46항	권2

	42橡木魚(열목어)[연목이], 43土肉(해삼), 44水母(해파리), 45鯨 [고락], 46朱內魚[주토고기] *아유가이본에 江黃[시욹디]이 독립항이나, 내용상 장서각본을 따라 鮫人(교인)에 부속함.		
5. 介蟲(개충) :「水族有甲者」 패갑류	1龜(귀)[남성이], 2鼈(벌)[쟈릭]・黿(원)・鼇(오), 3鼉(타)・鱷(악), 4吉弔(길조)・紫梢花(자초화)・江鐵(강철), 5鯪鯉(능리)・穿山甲(천산갑), 6鱟魚(후어), 7蛇[바얌]・靑蛇(청사)・殺母蛇(살모사)・白花蛇[산몽애], 8蟹(해)・石蟹[가재]・角蟹[곳궤], 9鰕[새오]・紫鰕[권장이]・鹵鰕[권장이짓]・梅鰕[오월잡이]・對鰕[대하], 10蠣蛤[굴], 11蟶(긴맛)[가리艮]・竹蛤[대尺], 12蚌[진주조기]・東珠[왜진쥬], 13車螯[대합조개], 14蛤蜊[참죠개]・玄蛤[모시죠개・춤죠개], 15江瑤(강요주江瑤柱)・魁蛤[湖南고막・關北강요쥬], 16馬刀[물십죠개], 17規[가막죠개], 18淡菜[홍합]・紅蛤(東海夫人), 19鰒魚[전복]・九孔螺[오식쟈개], 20鸚鵡螺(앵무조개)・珠螺[관음배铅], 21海螺[쇼라]・鳴螺[고동]・田螺[우렁이]・蝸嬴[배틀죠개]・蝸牛[달팡이]・水蝸[물달팡이]・蛞蝓[집절업슨달팡], 22 螖蠌(방게), 23車渠[힌쟈기], 24貝[비铅쟈기], 25珂(흰방합), 26郎君子(낭군자)	26항	
6. 昆蟲(곤충) :「一年小蟲, 有足曰蟲, 無足曰彡.」 충치류	1蠶[누에]・繭[고티]・蛹[본독이・標[누에셤]・柘蠶[구디누에]・ 蚖[쑥누에]・讎由[야견소], 2蠋(촉)・藿蠋[콩망우디]・麻蠋[노양 층이]・金鳳蠋[봉션튱], 3胡蝶[나뷔], 4蜂[벌]・蜜蜂[꿀벌]・蜂王 [장슈벌]・崖蜜[석청]・土蜂[꿀벌]・大黄蜂[왕통이]・木蜂[바둘 이], 5白蠟蟲(백람충)・紫膠[곤공], 6五倍子(오배자), 7蛅蟴[쐬아 기], 8蟷蟆[연가싀], 9蝗(누리)・斯螽[묏도기]・蠑蚸[방하아비]・ 負鍪[뵈짱이], 10蟋蟀[귓돌이], 11黄姘[픙덩이], 12蜻蜓[잔조리]・ 赤卒[모밀잔주리]・狐黎[송화잔주리]・紺鑾[텬동잔주리]・水蠻[청 별에・물송티], 13蝱[등에], 14蚊[모긔], 15蠅[平리]・景迹[쉬平 리]・蛆[귀덜이], 16蠛蠓[ㅎ르라기]・蜉蝣[ㅎ르살이], 17蜣蜋[꿀뜽 굴이]・天水牛(하늘소)[한으쇼], 18蟬[마얌이]・寒蟬[실으람이]・ 蠐螬[굼벙이]・蛀[주티], 19螻蟻[가얌이], 20缱鼄[거뮈]・壁錢[납 거뮈], 21廛蟲(자충), 22班油[오식갈외]・芫靑[청갈외]・王不留行 蟲(황불류행충), 23負版(부판), 24守瓜(노린재)・蠦蟹[쩍픙덩이]・ 壁蝨[빈대]・行夜[포수벌에], 25强蚌[쌀바굼이]・醯雞[五바굼이], 26螟(벼멸구)・焦苗蟲[모님회짝쟝벌에]・蟊[모리죰・검잠], 27蜆 [물무당]・叩頭蟲[독긔벌에], 28鼠婦[쥐며노리], 29地龍[디룡이], 30螻蛄(땅강아지)[도로리], 31馬蚿(노래기)[니밥노략이], 32蜈蚣 [진의]・蚰蜒[짱진의]・蠼螋[집게버레], 33衣魚(좀벌레)[칙의죰]・ ・蜈蜋(창당)[박휘], 34蚤[벼록]・人蝨[니]・蟣[석하]・八脚子[소 면발이]・牛膝[쇠진되]・草蝮[푸진되]・(虫+羊+心〉[어양이], 35 三尸蟲(삼시충)・蚘彘(희충)[거위]・血鱉蟲[쟈루]・蠱蟲[노올], 36盛(물여우), 37蠍[전갈], 38螢[반되], 39蟾蜍(두꺼비)[두텀이]・ 蝦甒[물개고리]・耶[알마고리]・蜗斗[올탕이], 40水蛭[거머리]・馬蜞[꿀거머리], 41青蚨(청부), 42水馬([거울],	45항	

	1			
		43石蠶[돌벌에], 44九節蟲(구절충)[누리광나모벌에], 45菊虎(국호) *장서각본은 水馬([거울]가 靑蚨(청부)의 부속됨.		
B. 無類	7. 草部 : 草[百卉草木 草	yh00五穀(오곡)[稻·黍·稷·菽·麥], yh01稻(도)[비]‧梗(갱)[괴비]·糕(나)[출비]·粳米(갱미)[괴발]·糯米(나미)[출발], yh02稷(沟)[괴기장]·黍(세)[苍기장], yh03蜀黍(촉서)[슈슈]·玉蜀黍[옥슈슈], yh04쨪(왕)[조조]·栗(속)[괴조], yh05禪(괘)[괴]·裔(제)[돌피]·八根草[바랑이], yh06緣子(삼자)[모대], yh07茲(고)·良子草(간자초)[줄], yh08荊三稜(매자기)[왕리], yh09莞草(왕골)·燈心草(등심초)[골]·穀精草(곡정초)[곡거름], yh10薏苡(의이)[달무우]·菩提子(보리자)[차조알이], yh11小麥[밀]·麥奴[감복이]·浮麥(부맥)[귀밀]·大麥[보리]·宿麥[가음보리]·發琴(과맥)[쌀보리]·麥麥[역기름]·麥筅[보리]·宿종[가음보리]·發琴(과맥)[쌀보리]·麥茅(작四][돌귀오리], yh12白茅(맥모)[곰위]·著香花(모향화)[메로기]·杜茅(모모)[재위], yh13首茅(관모)[목세]·黄芩(왕교)[유드리]·勒草(寺초)[그르영], yh14管(조및대), yh15葭(갈대)[갈]·蒹藤(名령][달], yh16竹[대]·仙人杖[自死衛]·筮竹(근令)[왕대]·古竹(之寺)[관음대], yh17水竹葉(수죽旬)·蓋草(신초)[강골], yh18甘蔗(감자)·砂糖[사당]·乳糖[두레사당], yh19蘘荷(양하)[양에], yh20薑(생강)[싱강], yh21篷菝皮(봉이송), yh22山薑(산강), yh23高良薑(고량강), yh24縮砂蝥(촉사밀)·白豆葱(맥무구), yh25益智子(의지자)·草果(초과)·草豆蔲(초두구), yh26內豆蔻(육두구), yh27百萬(파초), yh28五簪花[옥작화]·紅萼(홍악)[비비취], yh29射干[범부치], yh30萱草(환)[왕리]·紅芎(우이]), yh31馬醛(무듯)[물무듯]·野芡茲(야자고)[무듯], yh32山芡茲(산자고)[가치무듯], yh33慈姑(자고)[심<리품]·烏芋(오우)[음미], yh31果醛(구증이]·胡葱(호총)[쪽과]·若葱(각총)[돌과]·小荔(산자고)[과]·紫葱[곤증이]·胡荵(호총)[쪽과]·若葱(각촉)[돌과]·小荔(산자고)[과]·紫葱[곤증이]·胡荵(호롱)[쪽과]·若葱(각총)[돌과]·小药卷(소산)[돌니], yh39大蒜(대산)[마놀]·獨頭蒜(독두산)[도야마놀]·비蒜(산산)[즉지], yh40藜蘆(여로)[호라비좃], yh41果臢(中란)[봇옷], yh42繭花(난화), yh43菖蒲[苍모], yh44知母(지모), yh45름禪草(김상초), yh46莎草(자초), yh47段草(수초), yh45間離(양라), yh55篇蓄(편속), yh55端菁(전수), yh45間整(액이)灵), yh55篇蓄(편속), yh50黃精(역대), yh57王不留行(왕분위)[東點], yh50黃精(영대), yh55萬蓄(편속), yh50黃精(역대), yh57王不留行(왕분위)[東點], yh50黃精(역다), yh57王不留行(왕분위)[東點], yh50黃精(역다), yh57王不留行(왕분위)[東國], yh50素輔(河本)[왕본)], yh50黃精(연소)[돌씨], yh50黃精(연소)[등세], yh50黃精(연소)[등공리], 野荫(야소)[등제], yh50夏精禪(소자)[종조기], 野荫(야소)[등공리], 中荷納(자다)[증세], 香油(상우)[晉세], yh50財稱(②中)[阳의], yh63胡麻(②中)[전세], yh65時滿(의라)[여소)[편세], yh65相麻(②中)[편세], yh65時滿(의라)[편세], yh65時滿(의라)[편세], yh65時滿(의라)[편세], yh65時滿(의라)[편세], yh65時滿(의라)[편세]], yh65時滿(의라)[편세], yh65時滿(의라)[환(과)[知](의라(의라)[환(과)[知](과(河本)[河本(河本(河本)[河本(河本(河本(河本(河本)[河本(河本(河本(河本(河本(河本(河本(河本(河本(河本(河本(279항	권 ³

故紙(과고지), yh68羅勒(나륵), yh69蘭草(난초), yh70薰草(훈초), yh71藿香(곽향), yh72香薷(향유)[노약이] 舒牀(작상)[돌노약이], yh73荊芥(형개)[뎡가], yh74鬼針草(도깨비바늘)[새품], yh75牛膝(우슬)[쇠무릅], yh76漏蘆(누로)[海州법고치], yh77大麻(대마)[삼]·黃紵布(황저포)[계츌이]·苧麻(저마)[모시]·紵布(저포)[모시뵈]·白紵(백저)[모시누의니]·纑(노)[모시숨이], yh78薜(벽)[김삼] 蕁麻(담마)[풀쇠아가], yh79莔麻(맹마)[어즈귀], yh80綿花[면화] 凉花(양화)[소음] 蹑車(전거)[삐아],

yh81蕎麥(교맥)[모밀] 蕎穰(교양)[모밀느즈릉이], yh82大豆[콩]· 菽(숙)‧穭豆(여두)[쥐눈이]‧黃卷(황권)[콩기름]‧豆黃(두황)[콩 가린]‧豆腐[두부]‧末醬(말장)[東俗語]‧罨(엄)[며조씌우다]‧醬(장)[장]‧盤醬(반장)[된장]‧香鼓(향고)[약청국], yh83小豆(소두)[장], yh84藊豆(변두)‧龍爪豆(용조두)[강남콩], yh85豇豆(강두)[두부], yh86綠豆[녹두]‧菉豆腐(녹두부)[목]‧靑泡(청포)[東俗語]‧野菉豆(야녹두)[새녹두], yh87豌豆(완두), yh88野豌豆(야완두)‧蕨(고사리), yh89野蚕豆(야잠두), yh90決明(결명), yh91苜蓿(거여목)[게우목], yh92雲實(윤실)‧山豆(산두), yh93紫蔵(금등화), yh94甘草(감초), yh95苦蔘(고삼), yh96草黄芪(단너삼)‧木黄芪[등츩], yh97葛(剤)‧藤(등), yh98千歲櫐(천세루), yh99薜荔(병리), yh100滞桃(포도)‧瑣瑣葡萄(쇄쇄포도),

yh101獼猴桃(다래), yh102丁公藤(정공등) · 靈壽木(영수목), yh103 木鼈子(목별자), yh104使君子(사군자)・紫藤(자등), yh105五味子 (오미자) · 豆乙粥(두을죽), yh106通草(통초) · 木通(목통) · 防己(방 yh107菝葜(발계)·釣鉤藤(조구등), yh108預知子(예지자), yh109白蘞(백렴), yh110馬兜鈴(마두령), yh111山藥(산약)·甘藷(감 저), yh112香蕷(향여)·落花生(낙화생), yh113蘿摩[새박죠가리]·何 首烏[은죠롱] , vh114紅內消(홍내소) , vh115覆盆子[곰짤기] · 懸鉤子 [나모쌀기]·蓬藟[멍더리쌀기]·蛇莓[비얌쌀기], yh116烏蘞苺(오렴 매) · 白花菜(백화채)yh117栝樓(괄루), yh118王瓜[짜외] · 野甛瓜[쥐 참외], vh119甛瓜[참외] · 瓝[젼릉], vh120胡瓜[물외] · 越瓜[자외], vh121絲瓜[슈세외], vh122冬瓜[동하]·南瓜[호박], vh123匏瓜[박] · 瓠瓜[한박·동하박]·懸瓠[죠롱박], yh124西瓜[수박], yh125苦 瓜[녀디], yh126胡椒(호초)·畢澄茄(필징가), yh127牽牛花(견우 화), yh128旋花(선화)·綉毬(수구)·八仙花(팔선화), yh129天門冬 (천문동), yh130長松(장송)·羊枝蓮(양지련), yh131兎絲(토사)· 金線草(금선초), yh132常春藤(상춘등)· 落葵(낙규), yh133忍冬(인 동), yh134威靈仙(위령선) · 蕺(즙) · 筆管菜(필관채), yh135葎草 (율초)·藍藤(남등), yh136茹藘(여려)·綿馬(면마), yh137蒺藜(질 려), yh138地蜈蚣(지오공), yh139野葛(야갈)·坐拏草(좌나초), yh140鬼目(귀목) · 鼓箏草(고쟁초),

yh141紫花地丁(자화지정)・黃花地丁(황화지정), yh142苦菜(고체) ・曲曲菜(곡곡채)・田菁(전청), yh143白苣(백거)・萵苣(와거), yh144飜白草(번백초), yh145劉寄奴草(유기노초), yh146薺(냉이)・ 菥蓂(절명), yh147蔊菜(한채), yh148芥(겨자), yh149菘(숭)・蔓菁 (만청)・胡蘿苗(호나복)・胡廬巴(호로파), yh150莙葉(군달)・東風

草(동풍초), yh151菠薐(파릉), yh152胡萎(호위), yh153蕓薹(운대), yh154蔞蒿(テ 立) · 白 蒿(백 호) · 牛尾 蒿(우 미 호) · 黄 花 蒿(황 화 호), yh155青蒿(청호)・牡蒿(모호), yh156馬薪蒿(마신호)・茵蔯蒿(인진 호), yh157苹[말글대쑥], yh158艾[사지발쑥], yh159蓍[괴쏑양], yh160菴藺[진쥬봉], yh161前胡, yh162鞠, yh163紫菊, yh164秋牡丹, yh165芍藥, yh166 白羊鮮, yh167 溜羊藿, yh168 升麻, yh169 羗活, yh170 人叄, yh171 薺 苨, yh172桔梗, yh173沙叄, yh174丹叄, yh175大戟, yh176甘遂, yh177續隨子, yh178藺茹, yh179商陸, yh180南草[담 則], yh181莨菪, yh182青木香, yh183羊蹄, yh184大黄, yh185酸模, yh186離南, yh187 天名精, yh188豨薟, yh189地黃, yh190菜耳[天고마리], yh191澤瀉, yh192車前草, yh193狗舌草, yh194牛蒡, yh195大薊, yh196小薊, yh197术, yh198紫菀, yh199白頭翁, yh200毛茛, yh201秦艽, yh202草烏頭, yh203烏頭, yh204白附子, yh205鼠尾草, yh206狼把草, yh207鱧膓, yh208鹿蹄草, yh209菫菜, yh210蘄, yh211 蛇牀, yh212蘹香, yh213芎藭, yh214當歸, yh215白芷, yh216萞麻, yh217天南星, yh218玄胡索, yh219百合, yh220骨碎補, yh221黃連, yh222黄芩, yh223地榆, yh224蓽茇, yh225敗醬, yh226酸漿, yh227 龍葵, yh228茄子, yh229南蠻椒, yh230蓼, yh231虎杖, yh232藍, yh233生瓜菜, yh234莧, yh235佛甲草, yh236景天, yh237甖子粟, yh238金盞草, yh239蛇含, yh240防葵, yh241迎春花(아유가이본은 별개항), yh242款冬花, yh243杜蘅, yh244露葵, yh245蜀葵, yh246黃蜀葵, yh247灰藋, yh248地膚[日や 리], yh249三白草[벙거지나물](별개항), yh250鳳仙花, yh251靑葙, yh252金錢花, yh253酢漿草, yh254遠志, yh255木賊, yh256石斛, yh257赤箭, yh258肉蓯蓉, yh259靈芝, yh260木耳, yh261菌子, yh262 石耳, yh263石韋, yh264卷栢, yh265石蕊, yh266陟釐, yh267水藻 [말], yh268海菜[더욱], yh269海蘊, yh270蓴, yh271萍蓬草, yh272 蘋, yh273菱, yh274蓮, yh275芋[도란], yh276金絲荷葉, yh277紫茉 莉, yh278水木犀, yh279雪蓮(설련) yt01松[솔], yt02果松, yt03杉, yt04柏, yt05樟·枏(아유가이본은 枏이 부속항) yt06桋, yt07梓, yt08桐, yt09杶, yt10漆, yt11牡丹, yt12木綿花, yt13黃蘗, yt14皂莢, yt15槐, yt16檀, yt17必栗香, yt18 楓, yt19桺, yt20柜桺, yt21楡, yt22楡理木, yt23椴, yt24桑, yt25楮, yt26枸杞, yt27大連翹, yt28茉莉, yt29紫薇, yt30桂, yt31辛夷, yt32 8. 木部: 『나무 山茶, yt33茶, yt34枇杷, yt35杜鵤, yt36梔子, yt37女貞, yt38安石榴, 권4 生立曰樹. yt39秦椒, yt40食茱萸, yt41山茱萸, yt42羊桃, yt43樱桃, yt44郁李, 79항 取材曰木. yt45李, yt46杏, yt47桃, yt48梅, yt49山樝, yt50梨, yt51林檎, yt52 楙、yt53薔薇、yt54酸棗、yt55棗、yt56白桜、yt57柞、yt58栗、yt59杻、 yt60牡荊, yt61常山, yt62瑞香, yt63丁香, yt64沈水香, yt65降眞香, yt66梯, yt67椋, yt69橘, yt69枳枸, yt70無花果, yt71椰子, yt72荔支, yt73銀杏, yt74烏臼, yt75樺木, yt76阿魏, yt77蘓鐵, yt78虎刺, yt79 相思子

	9. 土部: 「地之無石處壽」 ・拓[音坼, 北人謂土曰拓]	1壤[부석흙], 2埴, 3墳, 4舊壁土, 5塗泥, 6田, 7廛, 8沙, 9灰, 10諸土 異化	10항		
C. 不動 類	10. 石部: 「地之凝堅者固 돌」	「地之凝堅者固 17石膏, 18滑石, 19石脂, 20禹餘粮, 21石芝, 22珊瑚樹, 23怪石, 24花		권5	
	11. 金部: 「生于土可以從 革者摠稱爲金」	「以從 1黃金[금], 2銀[흰쇠], 3赤銅[구리], 4鉛[털납], 5鐵[쇠]			
D.	12. 火部: 「所以熱物 号 」	1太陽火, 2石火, 3鑽燧火, 4積油火, 5樟脂火, 6獅子腋下火, 7雷霆火, 8龍火, 9鬼火, 10地中火, 11蕭丘冷火, 12火山, 13諸火異用	13항		
不靜 類	13. 水部: 「天地之津液流 下者号」	天地之津液流 11河,12海,13氷,14明水,15六天氣,16雲霧,17醴泉,18溫泉,19諸			
4類	7族 13部		685항	계	

논문투고일(2021. 10. 21), 심사일(2021. 11. 18), 게재확정일(2021. 12. 7)

참고문헌

- 『才物譜』(이만영, 4권 4책, 1798)
- 『物名考』(유희, 5권 1책, 1824)
- 『物名考·物譜』(김근수 해제, 文雅社 영인본, 1974)
- 『葩經物名』(1책본, 일명 詩經諺解物名, 1613)
- 『本草綱目』(1590)『東醫寶鑑』(1610)
- 『呂氏春秋』『周禮』『漢書』『康熙字典』『東文選』『近思錄集解』
- 『三峰集』(鄭道傳, 1397)
- 『玄谷集』(趙緯韓, 1658)
- 『瞻慕堂集』(林芸, 1669)
- 『榴巣集』(金信謙, 연도미상)
- 『龜峯集』(宋翼弼, 1762)
- 『淸臺集』(權相一, 1797)
- 『修山集』(李種徽, 1799)
- 『大山集』(李象靖, 1802)
- 『誠齋集』(南漢皜, 1814)

김익궈	2007	『동양천문사상	하늑의	역사』	예무서워
77 27 77	/ X N 11	A 8 8 9 1 1 7 1 8	이크	7/1	~ ~ ~ ~ ~ ~ ~ ~ ~ ~ ~ ~ ~ ~ ~ ~ ~ ~ ~

- _____, 2014 「나채류의 분류 문제와 김치류 음식의 발달」, 『김치의 인문학적 이해』, 세계김치연구소.
- ______, 2015 「과실과 나실, 과채류와 나채류의 생태자연학 보고서: 실학적 관심, 실용생활적인 전통식물분류법」(『네이버캐스트』, 〈실학, 조선의 르네상스를 열다〉, 2015.9.27.).
- _____, 2019 「장서각 소장본 『향약집성방』의 판본가치 재조명과 「향약본초부」 「초 부편」의 향명식물 목록화 연구」, 『장서각』 41집, 한국학중앙연구원.
- _____, 2020「장서각 소장본『향약집성방』향약식물 5부(초목과곡채) 목록화 및 북 송대『증류분초』식물부와 비교 연구」、『장서각』43집, 한중연.
- ______, 2021 「장서각소장 국보 초간본 『동의보감』의 학술가치와 「탕액본초편」 초부 (草部) 향명식물 목록화 연구」、『장서각』 45집. 한중연.
- 신중진, 2014 「사전학적 관점에서 본 『물명고』와 『재물보』의 영향 관계」, 『진단학보』 120집.
- 오보라, 2019「서파 유희『물명고』의 체계 및 의의 재탐색, 『대동한문학』 58집.

- 윤향림, 2018 「물명어휘집의 계통과 어휘 연구」, 안동대 국문학과 박사논문.
- 이가원, 1960 『物譜』와 실학사상』,『인문과학』 5권,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 장유승, 2014 「조선후기 물명서의 편찬동기와 분류체계」, 『한국고전연구』 30집, 한국 고전연구회.
- 홍윤표, 2000「유희의『物名攷』」、『어문연구』 28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황문환, 2016 『유희의 『재물보』 비판을 통해본 『물명고』의 차별성』, 『한국실학연구』 32집.

Abstract

A Study of the Origi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Yu Hui's Thesaurus of Names of Things from Early 19th century

KIM, Il-gwon *

The basis of this study is Yu Hui's *Thesaurus of Names of Things* (1824) which contains Hangeul inscription of names. This study explores the three-step classification system, organized into large-medium-small divisions, and the characteristic structure of classifying names. Behind Yu Hui's unique four group classification names there lies a complexity of ideas including the Buddhist theory of senses for sentient and non-sentient beings, the dual nature of stillness and movement of the Great Ultimate, and the Neo-Confucian theory of five substance from the *Explanation of the Diagram of the Great Ultimate* of Sung China, and also the theory of five elements for minerals originally propagated by the books of medicinal herbs. It is inferred that the division of animals and plants was made based on the existence of senses. Animals with senses are located in the first group, and plants with no senses, in the second. Minerals depending on [im]mobility are located in two groups: the immobile earth, stone, and metal are in the third, and the mobile water and fire are in the forth. Grouping animals, plants and minerals in this way is viewed as classification of the 'Livelihood in Nature' and thus *Thesaurus of Names of Things* is designated as the book investigating the world of nature.

Speaking of the small division for animal names it discovers the five elements theory in its five groupings, they are: animals with wings, with hair, without hair or wings, with scales, and with hard cover. This theory of five animal groups originates from the ancient Chin-Han dynasties. Also found was that thin-haired animals are listed as vegetarian, and

.

^{*}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short-haired ones, carnivorous. Animals with wings were listed as bird, with scales as fish, with hard cover as crustacean. Therefore, the small division consists of the five namely, bird, vegetarian, carnivorous, fish, and crustacean.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rest of animals *Thesaurus of Names of Things* cares for small things. Confucius's emphasis on names of things shown in the *Book of Odes* provided the basis for Jeong Cho's work "Concise Terms of Animals, Plants and Trees" in *Comprehensive History of Institutions* (1116). This idea was in the same vain used by Yu Hui for his own thesaurus. The middle division classification includes aquatic animals with scales or with hard cover, and animals with hair or without hair.

Summing up, the natural objects that *Thesaurus of Names of Things* focused on 685 items under the large, medium, and small divisions. The proportion of minerals is one tenth compared to the nine tenth concentrated on animals and plants. This data indicates that there is great demand that this thesaurus be compared with the books of medicinal herbs. Moreover, comparative studies for *Thesaurus of Names of Things* and its reference book, *Names of All Things and Products of Culture*, will benefit from intensified research on Korean inscriptions of things.

Key words: Thesaurus of Names of Things, Names of All Things and Products of Culture, Comprehensive History of Institutions, Names found in the Book of Odes, Theory of Sentient and non-sentient Perceptions, Explanation of the Diagram of the Great Ultimate, The Duel Nature of Stillness and Movement of the Great Ultimate, Western Inscription, Thesis on Animals and Plants, Theory of Five Elements and Five Groups of Animals